

2015
상반기
통권 177호

홍성문화

논 단 | 청림결백 · 충효의 상징, 최영장군
| 홍북면 신정리 임대순씨 가옥
홍성의 전설

| 사운고택에 전해오는 문은선생과 충마이야기

기 행 문 | 민족의 숨결을 따라

특별기고 | 패션스토리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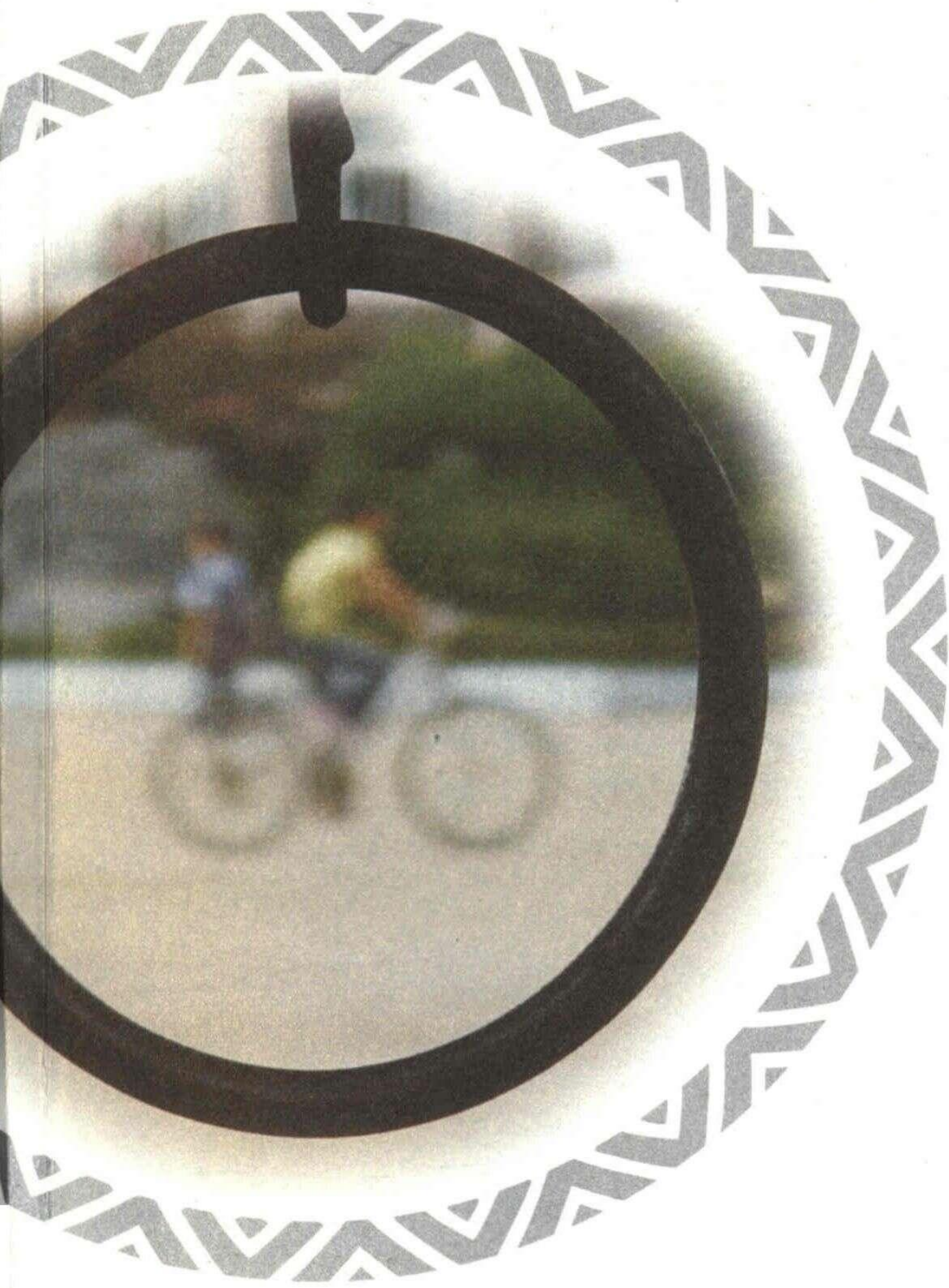
시&수필 | 봄을 찬양함

(독자기고) | 기다림

| 범치에 쏘이다

홍성의 역사인물 - (독자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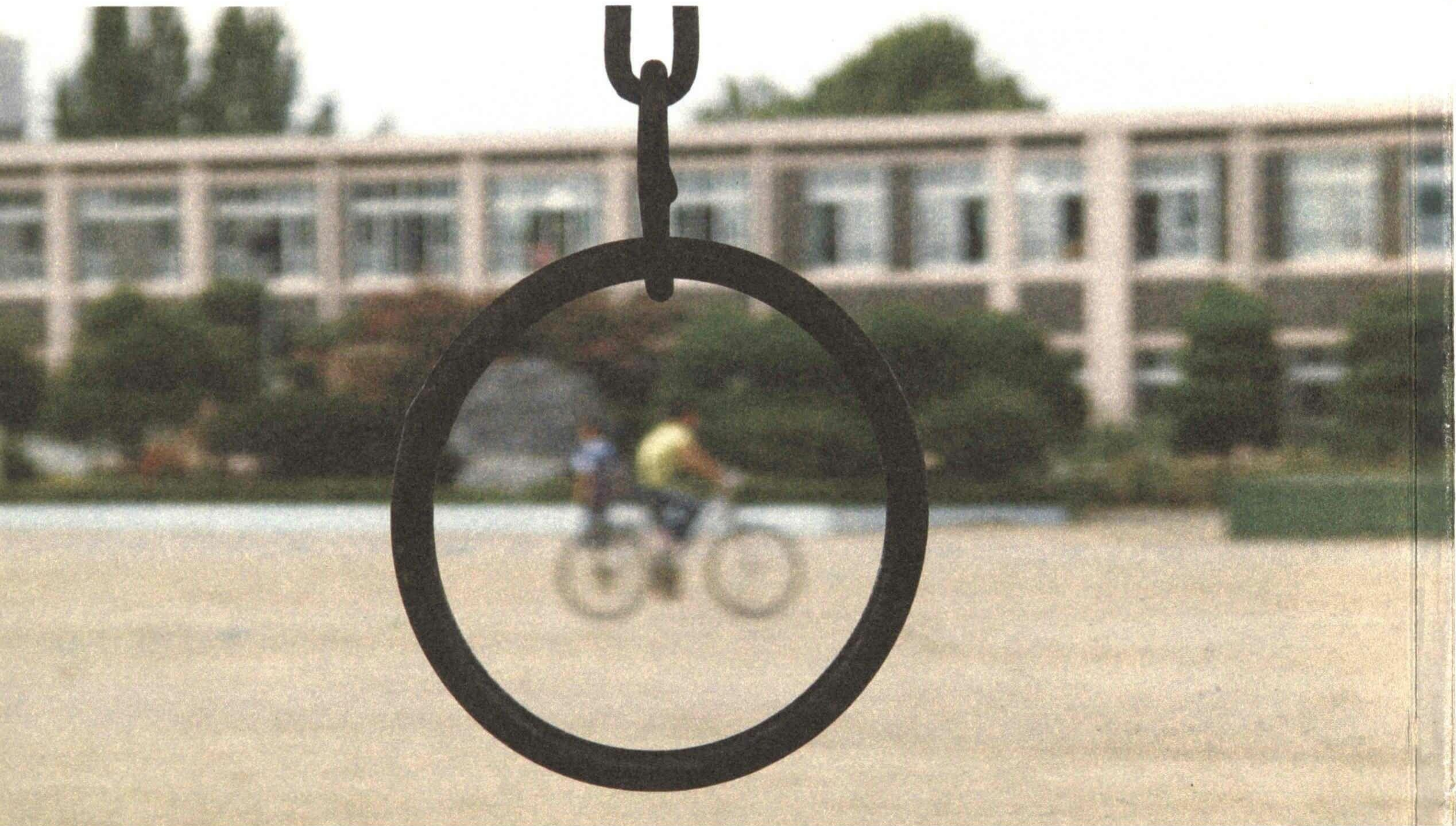
| 민족교육가 일농 서승태 이야기



[홍성문화 표지]

+

다정한 형제



10년이면 강산만 변하는 게 아닐 것이다.

이 사진은 2005년에 촬영한 홍성군 어느 초등학교의 한가한 오후 풍경이다. 아니 풍경이었다.

시골학교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초등학교들이

강산의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운동장에 줄지어 늘어선 느티나무,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이 지겹게 이어지던 단상,

뭉게구름 뒤에 무섭게 쏟아지던 소나기를 피하던 낡은 건물의 추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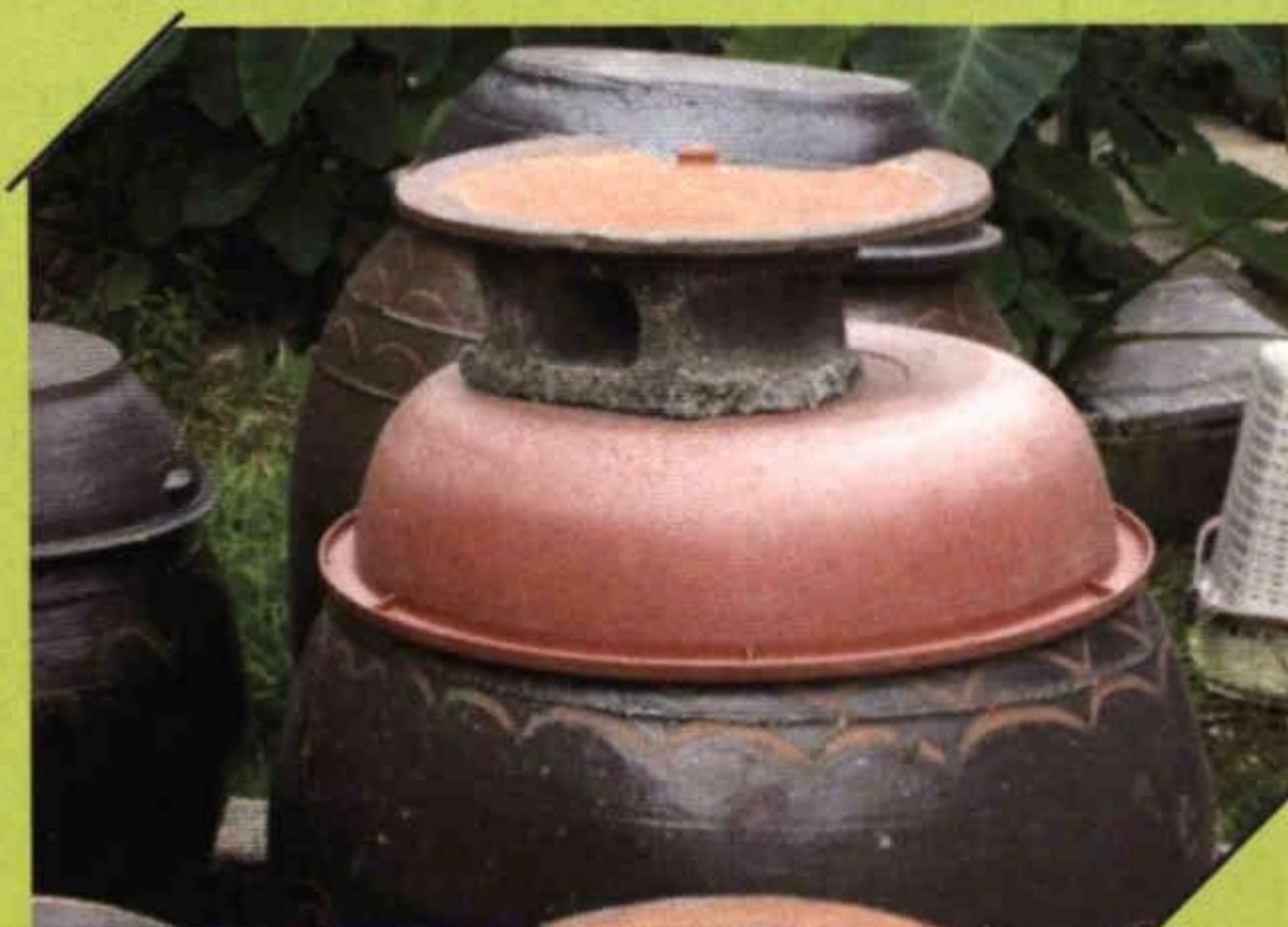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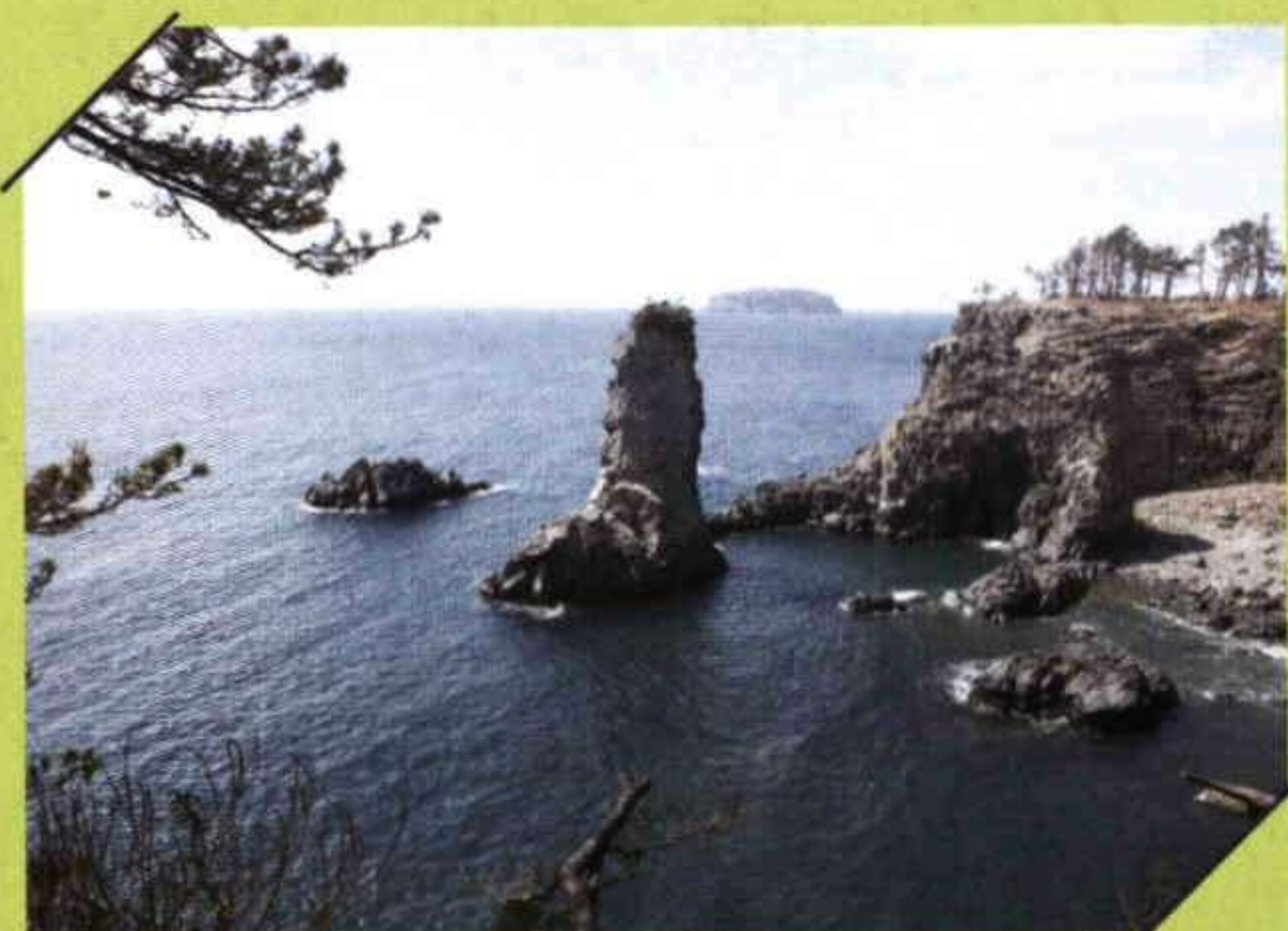
어느 날 오후, 눈을 들어 창 밖 먼데를 바라보면

변하기 전의 모든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문득 그리워지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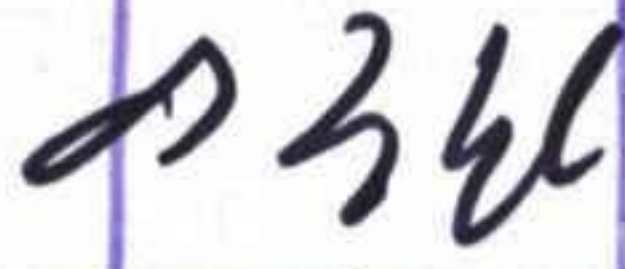
다정하게 자전거 타던 의좋은 형제는 또 얼마나 변했을까. 

2015 상반기
Vol. 177



Contents

- 04 논단 | 청림결백 · 충효의 상징, 최영 장군 (조원찬)
| 흥북면 신정리 임대순씨 가옥 (한종구)
- 30 흥성의 전설 | 사운고택에 전해오는 문은선생과 충마이야기 (김정현)
- 36 기행문 | 민족의 숨결을 따라 - 중국 동북삼성 대장정 I (정명순)
- 44 나의 삶 나의 예술 | 귀촌 10년차 생태미술가 한길순씨 (조성미)
- 50 특별기고 | 패션스토리 I - 옷은 언제부터 입었을까? (김기연)
- 57 시&수필 | 길 (황정옥)
| 순백의 목련화가 (전위영)
| 오늘 밤은 제발 떠나지 말아요 (신소대)
| 잠 못 이루는 밤 (주선미)
| 제비꽃 (윤은진)
- 62 독자기고 | 봄을 찬양함 (최규원)
| 기다림 (김정명)
| 범치에 쏘이다 (최규원)
- 68 흥성의 역사인물 - 독자기고 | 민족교육가 일농 서승태 이야기 (서용희)
- 72 흥성문화원 문화사업 | 우리문화탐방
| 전통성년식
| 필립 톰슨 피아노 연주회
- 78 제8회 흥성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
- 87 2015 흥성문화원 상반기 주요행사
- 90 2015 흥성문화원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계	지무국장	부원장	원장	결재
				
접수일자	2015. 8. 5			
접수번호				재



논 단

청렴결백 · 충의의 상징, 최영 장군

조 원 찬 (홍성여자고등학교 교사)



▲ 최영 장군 흉상

청림결백 · 충의의 상징, 최영 장군

1. 최영과 고려

최영(崔瑩, 1316년, 충숙왕 3년 ~ 1388년, 창왕 1년)은 창원(강원도 철원) 사람¹⁾으로 시호는 무민(武愍)이다. 평장사를 지낸 유청의 5세손으로 아버지는 사헌규정을 지낸 원직이다. 최영은 본래 풍채와 체력이 남보다 뛰어났는데, 처음에 양광도 도순문사의 휘하에 있으면서 누차 왜적을 사로잡아 용맹을 떨친 공로로 달적이 된 후 1352년(공민왕 1년) 조일신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장수로서 명성을 드높였다.

최영이 살았던 14세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에서 정권이 크게 흔들렸던 때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원나라의 간섭이 약해지면서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기존의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과 달리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하였다. 나아가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들의 갈등은 중국에서 원나라를 무너뜨리며 새롭게 명나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친원파와 친명파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점차 새로운 나라로서 조선이 성립되는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었다. 이때 중국은 베이징을 수도로 한 원나라에 맞서 난징을 서울로 정한 중국 한족의 명나라가 일어나 원나라를 몽골고원 일대로 쫓아내던 시기였다. 한편 일본도 이때에는 최초로 무사 집단이 세웠던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는 가운데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면서 남북조시대가 나타나던 때였다. 그 결과 막부 중심의 중앙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방 세력들이 날뛰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자가 부족한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약탈을 일삼던 왜구가 들끓게 된 것이다.

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삼봉산이 주의 동쪽으로 23리에 위치하는 가운데 봉우리에는 최영의 사우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충청도읍지』에 의하면, “고려조의 최영은 본주의 적동리에서 출생하였다. 이러한 연고로 금곡은 文이요, 적동은 武라 한 즉 최영을 지칭한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최영의 본관이 철원으로 되어있지만 적동과 관련이 있다. 고을 사람들이 사우를 세워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사를 올리고 있다.”라고 기록하였다. 아울러 최영과 관련된 전설이 금마총, 철마산, 용봉산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는 내부적인 혼란에 더하여 남북으로 외적의 침략을 당해야 했다. 북쪽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에 쫓기면서 밀려들어 온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고, 남쪽에서는 일본 왜구의 침입이 있었다. 결국 고려는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침입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최영은 고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최영 장군 전설이 전해오는 용봉산(홍북면 신경리) ▶



이와 같이 내외의 격동기였던 14세기의 상황을 온 몸으로 느꼈던 최영은 안으로는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였고, 조일신의 난을 비롯한 제주도 목호의 난 등을 진압하면서 충의를 펼쳤다. 밖으로는 원·명 교체기의 상황에서 원나라에 구원군으로 파견되어 크게 이름을 떨치는가 하면, 원나라에 의해 밀려들어 온 홍건적의 침입을 진압하였으며, 입술에 화살을 맞는 순간에도 왜구를 몰아냈던 홍산대첩의 영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고려사』의 최영 열전을 중심으로 최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청렴결백,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다

『고려사』 권113, 열전26, 최영조에 따르면, 최영은 성질이 강직하고 충실하며 또 청렴하였다. 최영이 16세 때 아버지가 죽을 무렵에 훈계했던 “너는 금덩이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한 말을, 최영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비록 사는 집이 초라하였지만 그곳에 만족하며 살았고, 의복과 음식도 검소하게 생활해 간혹 식량이 모자랄 때도 있었다.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타거나 좋은 의복을 입으면 개나 돼지만치도 여기지 않았다. 지위는 비록 재상과 장군을 겸하고 오랫동안 병권을 장악하였지만 뇌물과 청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 그의 청백함에 탄복하였다. 항상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사소한 문제에 구애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고려사』 권113, 열전26에 기록된 최영과 관련된 몇 가지 일

화들을 통해 그의 청렴결백한 성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1363년(공민왕 12년) 3월 후 윤달의 어느 날이었다. 김용의 난이 진압된 후 어떤 사람이 김용의 묘아안정주(고양이 새끼의 눈을 닮은 구슬)를 입수해 도평의사사에 보낸 일이 있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구경하였지만, 최영은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며 “김용이 그 따위 것 때문에 양심을 잃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경하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崔瑩平章事惟清五世孫也父元直仕至司憲糾正瑩風姿魁偉膂力過人初隸楊廣道都巡問使麾下屢擒倭賊以武勇聞補弓達赤恭愍元年趙日新作亂瑩與安祐崔源等協力盡誅授護軍三年拜大護軍與柳濯從元丞相脫脫等征高郵前後二十七戰城將陷脫脫被譖師罷明年禦賊淮安路累戰于八里莊又泗和等州賊八十餘艘圍淮安城晝夜力戰却之賊復至瑩身被數槍奮擊殺獲殆盡既還國與印璫攻破鴨綠江以西八年倭四百餘艘寇吾義浦瑩設伏與戰克之又明年爲西北面兵馬使紅賊入西京瑩與諸將戰于生陽鐵和西京咸從之聞頗有功又明年拜平壤尹兼西北面巡問使時瘡痍

▲『고려사』 최영 열전

다음은 최영이 정방에 있었을 때의 일화이다. 최영은 반드시 공로가 있거나 재능 있는 자를 선택해 채용하였고, 만일 등용할 자격이 없는 자라면 사정없이 배격하였다. 재상들 중에도 영리를 꾀하거나 토지와 백성을 빼앗는 자나 사정에 이끌려 법과 풍기를 훼손하는 자는 모두 바로잡았다. 일찍이 이인임에게 “나라가 매우 곤란한데 당신은 수상으로서 어찌 이것을 우려하지 않고 다만 가정 살림에만 관심을 쏟는가?”라고 하자 이인임이 입을 벌리지 못하였다. 또한 도당에 나가서는 언제나 정색하고 바른 말을 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좌우에서 공감하는 자가 없으면 혼자서 탄식하곤 하였는데,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국가 정치에 관해 밤중에 생각하고 날이 새어서 그것을 동료들에게 말하면 여러 재상들 중에서 나와 의견이 같은 자가 없으니 사직하고 은거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한편 최영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종종 시를 읊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최영이 여러 재상들과 각각 한 구씩을 지어 맞추며 한시를 지었는데 경복홍이 먼저 읊기를 “하늘은 옛 하늘이지만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로다.”하자 최영이 대꾸하며 말하기를 “달은 밝은 달이로되 재상들은 밝지 못하구나.”라고 하였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통렬히 배격했던 최영의 마음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최영의 강직하고 청렴한 모습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다음의 일화에서도 빛을 발한다. 1376년(우왕 2년) 최영의 조카사위였던 판사 안덕린이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 양광도 안렴사 양이시가 구속해서 헌사로 압송한 일이 있었다. 이때 최영은 판순위 부사로 있었는데, 도당에서는 최영과의 관계를 고려해 안덕린의 죄를 가볍게 하려고 순위부로 넘겼다. 이에 최영이 화를 내면서 “안덕린이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헌사에서 판결할 것이다. 하물며 내가 순위부에 있으면서 어찌 문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마침내 헌사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청렴결백한 성품의 최영을 모두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일화는 신돈이 최영을 모함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도 최영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어느 날 김란이 신돈에게 그의 딸을 준 것을 놓고 최영이 책망하자 그 후 신돈이 최영을 미워하였다. 1365년(공민왕 14년) 최영이 동서강의 도지휘사로서 고봉현에 사냥 갔을 때 왜구가 강화도 교동에 침입한 일이 있었다. 이에 신돈이 왕에게 최영을 헐뜯어 없애는 죄도 있는 것처럼 고해바쳤다. 왕이 이순을 보내 최영을 꾸짖으면서 “왜구가 창릉(황해도 개풍군 남포리에 있는 묘)에 침입해 세조(왕건의 아버지)의 영상을 가져갔는데 그대는 동서강 도지휘사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김속명이 그대를 대신하였지만, 때 없이 사냥을 나가니 무슨 일인가. 내가 비록 말을 하지 않아도 대간에서 어찌 물의가 없겠는가? 이제 그대를 계림윤으로 보내니 이 직무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영이 그 말을 듣고 궁궐을 향해 감탄하면서 “오늘날 죄를 짓고 생명을 보전한 자가 적은데 나는 계림윤으로 될 수 있었으니 임금의 은혜가 두터워라.”고 하고 마침내 부임하였다. 그렇지만 1371년(공민왕 20년) 최영은 찬성사로 돌아왔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겼던 청렴결백한 성품의 최영이었지만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볼 때면 언제나 술선수범의 자세로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1359년(공민왕 8년) 평양윤 겸 서북면 순



청렴결백의 상징, 최영 묘(적분) ▶
(경기도 고양시, 문화재청 자료 참고)

무사로 임명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에 전쟁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굶어죽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이에 최영은 각처에 구제소를 설치하고 양식과 종자 곡식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전사자의 시체를 거두어 매장하였다.

이러한 최영의 모습은 1380년(우왕 6년) 우왕이 최영에게 내린 교서에서 더욱 빛을 나타낸다. “..... 전투를 한 것과 그 공로가 크기로는 오직 그대 한 사람만이 뚜렷이 나타난다. 또 더욱이 충성이 지극하고 정의에 감분해 임금을 존중하며 백성을 보호함에 있어서 재상 중의 참된 재상이다. 토지와 노비를 주어 표창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그대는 천성이 결백해 반드시 굳이 사양할 것이므로 다만 공신녹권을 주고 옥으로 족자를 만들어 특별히 우대하는 뜻을 표시한다. 아! 공은 크고 상은 박한 것을 내 게면쩍게 여기노라. 그대가 혹 법을 범하더라도 아홉 번까지는 묻지 않을 것이며 10번에 이르러도 응당 최종의 형을 감할 것이다. 자손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이다. 후대의 임금과 신하는 내 뜻을 체득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3. 반란을 진압하고 충의를 떨치다

1352년(공민왕 1년) 조일신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최영은 안우, 최원 등과 협력해 그들을 모조리 처단하였다. 조일신(?~

1352년, 공민왕 1년)은 공민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모셨던 공적으로 1등 공신이 되고 스스로 좌승상에 오르더니, 공민왕이 단양대군 집에 갈 때에는 말을 탄 채로 왕과 대비에게 술잔을 올릴 정도였다. 이때 『고려사』 반역 열전 조일신조에 의하면, “여러 날 흐리고 흠비가 오더니 조일신을 처형하자 하늘이 활짝 개었다.”고 한다.

1363년(공민왕 12년) 김용이 반란을 일으키고 흥왕사의 행궁을 습격했을 때 최영은 우제, 안우경, 김장수 등과 함께 반란의 무리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에 최영은 반역 토벌의 1등공신으로 진충분의좌명공신을 받고 판밀직사사로 승진하였다.

1364년(공민왕 13년) 기황후를 설득해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대신 덕흥군을 세우려는 음모를 꾸몄던 최유가 덕흥군과 함께 원나라에서 압록강을 건너왔다. 고려군이 싸웠지만 패하여 선주(평북 선천)까지 점령되자, 공민왕이 최영을 도순위사로 임명해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최영은 여러 장군들과 함께 달천에서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그 후 최유는 원나라에 송환되어 처형되었고, 덕흥군은 장형을 받았다.

4. 홍건적을 물리치다

최영은 중국 한족의 홍건적을 물리치기에 앞서 왜구를 물리쳤고 원나라에 파견군으로 가서 크게 이름을 떨쳤다. 1354년(공민왕 3년) 최영은 원나라의 요청에 의해 편성된 장사성 토벌군의 지휘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최영은 유탁과 함께 원나라 승상 탈탈을 따라 고우(중국 강소성)를 토벌할 때 27회의 전투를 지휘하면서 크게 이겼다. 1356년(공민왕 5년) 5월 귀국한 최영은 원나라의 세력이 약한 것을 틈타 인당과 함께 압록강 서쪽 8개소의 병참을 격파하였다.

1359년(공민왕 8년) 서북면병마사 최영은 홍건적이 서경으로 침입하자, 여러 장수들과 함께 생양역(평양 중화군), 철화현(황해 황주군), 서경, 함종현(평남 온천군) 일



▲ 홍건적의 침입과 격퇴

대에서 싸워 큰 전공을 세웠다. 1360년(공민왕 9년) 평양을 겸 서북면 순문사가 된 최영은 당시 전쟁의 여파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지자 여러 곳에 구제소를 설치하여 양식과 종자를 지급해 농사를 장려하고 전사자의 유골을 매장해 주었다.

1361년(공민왕 10년) 10월 10만이 넘는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개경을 함락하였다. 이에 공민왕은 음죽현(충북 음성군), 충주(충북 충주시) 등을 지나 12월 복주(경북 안동시)로 피난하였다. 1362년(공민왕 11년) 정월 최영은 안우·이방실 등과 함께 군사 20만을 인솔해 동교에 진을 친 후 개경을 포위하면서 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이때 홍건적이 가지고 있던 원나라 황제의 옥새와 도장, 무기 등의 물품도 빼앗았다. 이에 최영은 안우, 이방실 등과 함께 개경을 회복한 공적으로 1등공신이 되어 공신각에 초상화를 걸고 토지 및 노비를 받았다. 또 그 부모와 처도 작위를 받았다.

2) 고려 공민왕 때 탐라총관부 이래 제주도에서 말을 길렀던 목호(牧胡, 몽골 유목민)들이 일으킨 반란.

5. 제주도 목호의 반란²⁾을 진압하다

제주도에 목호(몽골 유목민)가 살게 된 것은 1273년(원종 14년) 여·몽 연합군이 탐라에서 활동했던 삼별초 난을 진압한 뒤, 탐라총관부를 설치하면서 다루가치가 파견되고, 1277년(충렬왕 3년) 목마장을 설치한 후 말을 기르기 위해 목호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374년(공민왕 23년) 6월 명나라가 고려에게 몽고 정벌을 위한 제주도의 좋은 말 2천 필을 보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이에 한방언이 탐라에 가서 말을 가져오려고 하자 목호인 시데리비스·샤오쿠투부카·관음보 등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3백 필만 보냈다. 그러자 공민왕이 같은 해 7월 최영을 양광·전라·경상도 도통사로, 염흥방을 도병마사로 임명하고, 큰 병선 314척과 병사 25,600명을 거느리고 제주도를 토벌하게 하였다.

같은 해 8월 군사가 나주에 도착하자 최영이 영산에서 열병하고 검산곶(전남 진도 벽파진)을 지나 보길도에서 정박하였다. 다음 날 해가 저물어 추자도에서 정박하고 이튿날 제주에 도착하였



▲ 제주 외돌개(최영 장군 바위)와 범섬(문화재청 자료 참고)

3) 고려 말 이후 왜구가 들끓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은 무로마치 막부가 정권을 잡은 후 남북조의 내란기에 접어든 틈을 타 지방 세력이 날뛰었던 상황과 관련이 많다. 특히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한반도에 가까운 쓰시마, 이키, 마츠우라 등은 왜구의 주된 근거지였다. 이들은 부족한 식량과 물자 확보, 인신매매 등을 위한 약탈적 노략 행위를 일삼았다. 많은 경우 왜구는 400척 이상의 배를 동원할 정도였고, 하천을 이용하여 고려의 내륙 깊숙이 침입하였기 때문에 당시 왜구의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광범하고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1223년(고종 10년) 이후 1392년(공양왕 4년)까지 169년간 왜구 침입은 519회의 침입이 기록되어 있다. 가장 극성기인 우왕 때는 연평균 27회의 침략을 하였다. 왜구와의 전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싸움은 이성계의 황산대첩(1380년), 최무선의 진포해전(1380년), 최영의 홍산대첩(1376년) 등을 들 수 있다. 이성계가 지휘한 황산대첩은 전북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이고, 진포해전은 최무선이 처음으로 화포를 동원하여 금강 하구에서 왜구를 대파한 사건이다.(윤용혁, <최영 장군>, 《홍성인물지》, 홍성군, 2009.)

다. 시데리비스·샤오쿠투부카·관음보 등이 3천여 기의 병력으로 명월포에서 항거하자 최영은 4면에서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해안에 상륙한 최영은 좌우로 맹렬히 공격해 적을 대파하고 패주하는 적병을 30리 지점까지 추격하였다가 해가 저물 무렵에 명월포로 돌아왔다. 다음날 최영이 날랜 군사로 적을 추격하자 적은 호도(범섬)로 들어갔다. 그러나 최영이 40척의 배로 포위하며 공격하자 시데리비스가 자기 처자 및 그의 도당 수십 명을 데리고 나왔고 샤오쿠투부카·관음보는 산언덕 밑에 떨어져 죽었다. 이에 최영은 시데리비스를 죽이고 샤오쿠투부카·관음보의 머리를 베어 왕에게 바쳤다.

이어서 동도의 몽골족인 석다시만조·장홀고손 등의 잔당들까지 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1374년(공민왕 23년) 10월 최영이 여러 장군과 함께 돌아오니 왕이 이미 죽었으므로 최영은 시체 앞에서 보고하고 목이 메어 통곡하였다.

6. 홍산대첩, 백발의 최만호가 왜구를 물리치다

최영은 처음에 양광도 도순문사의 아래에 있으면서 누차 왜구³⁾를



▲ 부여 홍산대첩 기념비(부여군 홍산면)

사로잡아 용맹을 떨쳐 달적으로 채용되었다. 1375년(우왕 1년) 왜구가 연산 개태사에 쳐들어왔는데 원수 박인계가 패배하며 전사하였다. 우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영은 왜구 토벌을 자청하여 허락을 받고 밤낮으로 행군하였다.

1376년(우왕 2년) 최영이 부여 홍산으로 가서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를 잡았다. 그 곳은 3면이 다 절벽이고 오직 길 하나가 통할 뿐이었다. 드디어 왜적이 쳐들어오자 모든 장수들이 겁을 먹고 전진하지 못하였는데, 최영이 몸소 선두에 서서 돌진하자 적은 바람에 풀잎이 쓰러지듯 넘어졌다. 이때 적 1명이 숲속에 숨어 최영을 쏘아서 입술을 맞혔다. 최영은 유혈이 낭자하였으나 안색은 태연하였으며 오히려 그 적을 쏘니 시위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 그런 후에야 맞은 화살을 뽑았다. 최영은 더욱 용감히 싸워 마침내 크게 이겼다.

최영이 돌아오자 우왕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환영하고, 철원부원군을 주었으며 이색에게 칭찬하는 글을 짓게 하였다.

7. 요동 정벌과 위화도 회군, 최후를 맞이하다

- 맺음말을 대신하며 -

1388년(우왕 14년) 2월 설장수가 명나라로부터 귀국하면서 “... 철령(강원도 안변군 신고산면과 강원도 회양군 하북면 사이에 있는 고개) 이북 지역은 애당초 원나라에 속했으니 함께 요동으로 귀속시키도록 하라.”는 명나라 황제의 말을 전달했다. 이에 우왕은 5도의 성곽을 수리하게 하는 한편 서북 국경지대를 강력하게 지키게 하고 최영과 함께 요동 공략을 의논하였다.

철령위 설치 중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철령위를 세우려는 명나라의 소식이 들려오자, 최영은 우왕과 함께 8도의 군대를 모으고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1388년(우왕 14년) 4월 우왕이 평양으로 가서 각 도에 독촉해 군대를 징발하는 한편, 압록강에 뜬다리를 만들게 하고 전국

서 조인옥과 이제 등이 상서하여 “... 최영은 큰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행히도 이러한 반역을 범하였으니 진실로 온 나라 사람이 참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공론으로 볼진대 이른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혼란한 신하입니다. 전하는 과단성 있게 대의에 입각해 빨리 단죄를 명령함으로써 명나라에 사죄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1388년(창왕 1년) 12월 최영이 죽으니 나이 73세였다. 처형될 때 언사와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죽던 날 서울 사람들은 시장을 중지하였으며 어디서나 이 소문을 듣고는 거리의 어린이들이나 시골 부녀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시체가 길가에 놓여 있었는데 오고 가는 사람이 말에서 내렸다. 도당에서 양식과 피륙 및 종이를 부조하였다.

최영은 성품이 강직하고 충실하며 또 청렴하였다. 전쟁터에서 적과 싸울 때 태연하였으며 화살이 빗발 같이 지나가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군대를 지휘함에 있어서는 규율을 엄격히 해 반드시 승리하였으며 전사가 한걸음만 물러서도 곧 목을 베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에서 어디서나 크게 이겼고 일찍이 패한 적이 없었다. 또한 최영은 나이 16세 때 아버지가 죽을 무렵에 훈계했던 “너는 금덩이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한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거처하는 집이 초라하였으나 그 곳에 만족하고 살았다. 의복과 음식을 검소하게 해 간혹 식량이 모자랄 때도 있었다. 남이 좋은 말을 타거나 좋은 의복을 입은 것을 보면 개나 돼지만치도 여기지 않았다. 지위는 비록 재상과 장군을 겸하고 오랫동안 병권을 장악하였으나 뇌물과 청탁을 받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 그 청백함을 탄복하였다. 항상 대체를 견지하기에 노력하였으며 조그마한 문제에 구애되지 않았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 『고려사』, 최영 열전, <http://www.krpia.co.kr>
- 문화재청, 문화유산 정보, <http://www.cha.go.k>

논 단

홍북면 신정리 임대순씨 가옥

한 종 구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홍북면 신정리 임대순씨 가옥

1. 마을의 인문환경 및 조사가옥의 조영배경

1.1 홍북면 인문환경

홍북면은 면적이 44.66km²이고, 인구는 6,164명(2001년)으로 서 13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으로 예산군 응봉면, 남동쪽으로 금마면, 남쪽으로 홍성읍, 서·북쪽으로 예산군 덕산면과 삼교읍에 접한다. 북서부의 용봉산, 수암산, 홍동산 등이 이루는 300m 내외의 교지 외에는 면의 대부분이 100m 이하의 구릉으로 되어 있다.

1.2 신정리(新井里) 인문환경

본래 신정리는 홍주(홍성)군 대감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동, 계정리, 상유정리, 하유정리, 후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동과 유정의 이름을 따서 신정리라 하여 홍북면에 편입되었다.

1.3 조사가옥의 현황

1.3.1 가옥 및 가족의 내력

본 가옥은 1900년에 구반회씨가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임대순씨 아버지가 그 집을 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임대순씨가 물려받아 2대째 거주하고 있다. 아들, 딸들은 현재 출가중이고, 지금은 임대순씨와 부인, 임대순씨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으며, 옆집에는 사촌동생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1.3.2 경제생활 및 의식주 생활

임대순씨와 그의 부인은 논이 30마지기, 밭이 1,300평정도 있다. 논은 벼농사를 짓고 있고, 밭에서는 고추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또 사랑채의 공간을 틈워 소를 키우고 있다. 할머니께서는 치매에 걸리셔서 혹시 나오셨다가 길을 잃어 없어질 수도 있어 방문을 자물쇠로 잠가놓고 방안에서만 계신다.

식생활은 주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김치, 야채와 밥을 먹으며 출가한 자식들이나 손님이 오면 고기를 먹는다.

점심은 주로 논이나 밭에서 먹는다. 육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며 명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 일 년에 제사상을 7 번이나 치른다.

2. 가옥의 내·외부 구성

2.1 가옥의 내부 구성

본 가옥은 정면 6칸 반, 측면 2칸 반의 안채와 정면 9칸, 측면 3칸의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민가가 여러 종류의 공간들이 모여 하나의 큰 공간을 구성하는 것처럼 임대순씨 가옥의 각 공간들도 주거기능에 따라 공간이 분화되어 다양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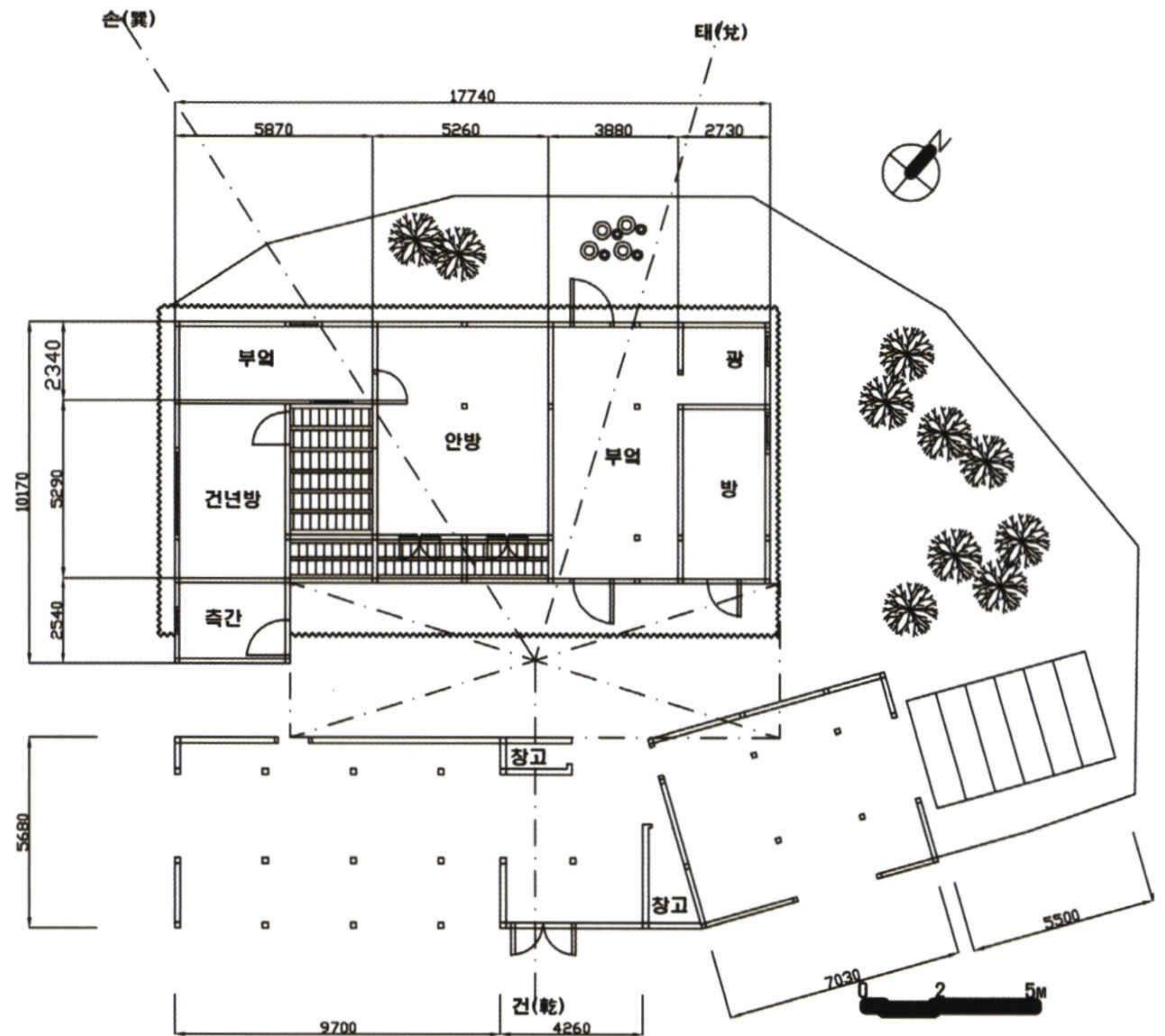


그림 1 임대순씨 가옥의 배치도 ▶

2.1.1 임대순씨 가옥의 안채 평면구성

안채는 비교적 평탄한 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안주인이 기거하는 곳이다. 서쪽에서부터 건넌방, 대청, 안방, 부엌, 방이 배치되어 ‘—’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건넌방과 안방 사이에 정면 1칸 크기의 작은 대청이 있으며 대청과

안방 앞으로는 반칸 정도 크기의 퇴가 형성되어 있다. 이 공간은 안방과 부엌 그리고 건넌방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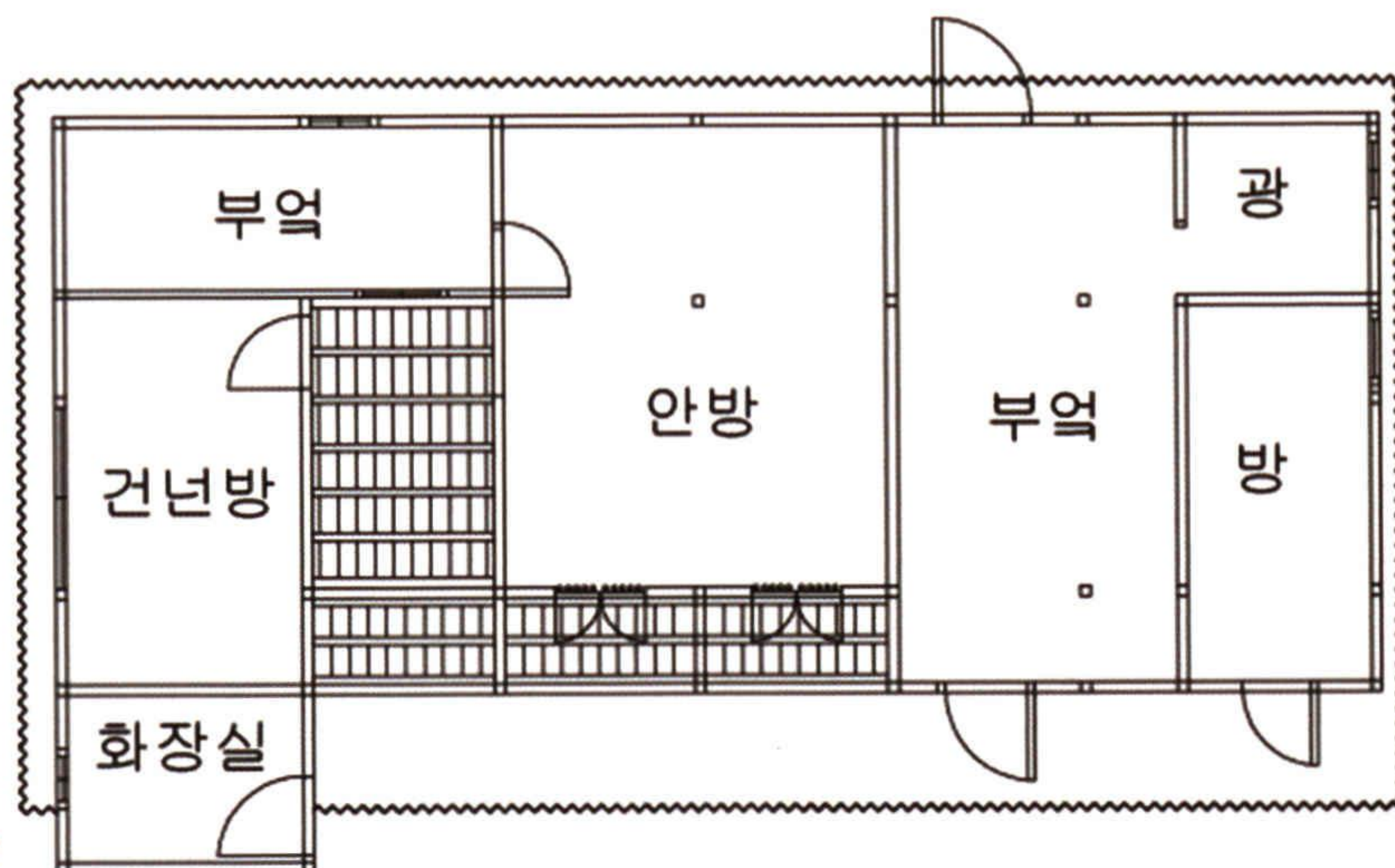


그림 2 임대순씨 가옥의 안채 평면도 ▶

(1) 안방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사상과 내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부인의 거처는 남편의 거처인 사랑방과 별개로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안방은 안주인의 일상공간이며 안주인의 취침 공간이다. 본 가옥도 농가이지만 이러한 영향을 일정부분 받은 가운데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안방은 정면 2칸, 측면 2칸 크기로 안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소 특이하게 안채의 중심에 위치한다. 안마당에서 대청을 통해 건넌방으로 갈 수 있으며 또한 이 대청을 통해 새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입식부엌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조사당시 바닥은 장판지, 벽과 천장은 도배지로 마감하였다. 안방의 출입은 전면의 두 짝의 쌍여닫이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문은 띠살로 구성되어 있고 문의 아래에 머름청판과 머름대, 머름기둥을 두어 격을 높이고 있다. 머름을 통해 안방 내부공간이 마당에서 쉽게 들여다보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림 3 안채의 대청과 툇마루

(2) 대청

안방의 서쪽으로 대청마루가 위치하고 있으며, 부엌과 건넌방



▲ 그림 4 안채의 대청

의 출입을 위한 전실의 기능을 담당하고 여름에는 주생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민가에서 대청이 발달한 이유는 남쪽 지방의 고상주거에서 발달한 여름을 나기 위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대청이 제례 공간과 맞물려 발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선초기에는 성리학적 국가관을 확고히 하려고 집안에 사당 짓는 것을 권장했다. 그리고 사당을 지을 여력이 없는 집은 대청에 위패를 모시는 것도 허락했다고 하는 점에서 사당을 따로 두지 않고 대청 한쪽에 감실을 두어 위패를 모시기도 하였다.

이렇듯이 대청은 단순히 여름을 나기 위한 공간이 아닌 제례의 장소로도 활용하려고 만들어졌다. 결국 대청은 한국의 자연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와 사회문화요소가 어울려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가옥의 대청은 구조상 전면 1칸, 측면 2칸 규모이지만 안방 남쪽의 툇마루와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는 2칸 반에 이른다.

(3) 건넌방

안방과 대청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건넌방은 안채에서 가장 고요하고 아늑한 방이며 일반적으로 며느리의 취침공간인 동시에 일상거처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다. 내부의 구조는 안방과 동일하고 툇마루 쪽으로는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넌방 서쪽으로는 예전에는 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벽으로 되어 있어 예전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건넌방 앞으로는 측간이 설치되어 있다.

(4) 부엌

부엌은 현재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건넌방이 있는 대청의 북쪽에 위치한 부엌은 현대식으로 가옥의 건립 초기에는 방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 입식부엌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방 동쪽의 부엌은 안방의 난방을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음식장만을 하는 공간으로 아궁이를 설치하기 위해 바닥이 낮게 되어 있다. 북쪽으로 출입문이 있어 뒷마당 장독대로 통하



▲ 그림 5 안채의 툇마루 정면

▲ 그림 6 안채의 툇마루 측면

게 되어 있고, 남쪽으로 통하는 문도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5) 툇마루

안방과 안대청 앞쪽으로 반간의 툇마루를 내었다. 보통 툇마루를 까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방이나 대청 앞쪽으로 기둥을 세우지 않고 툇마루만을 받칠 동바리기둥을 세워, 이 위에 툇마루를 까는 경우로 주택과 사찰의 승방에 널리 쓰이고, 둘째는 몸채 자체의 가구(架構)를 구성하는 퇴주(退柱)와 본기둥 사이에 툇마루를 까는 경우로 주택을 비롯하여 궁궐·관아 건축에 널리 쓰인다. 툇마루에는 평난간이 계자난간을 다는 경우와 난간을 전혀 달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앞의 경우가 고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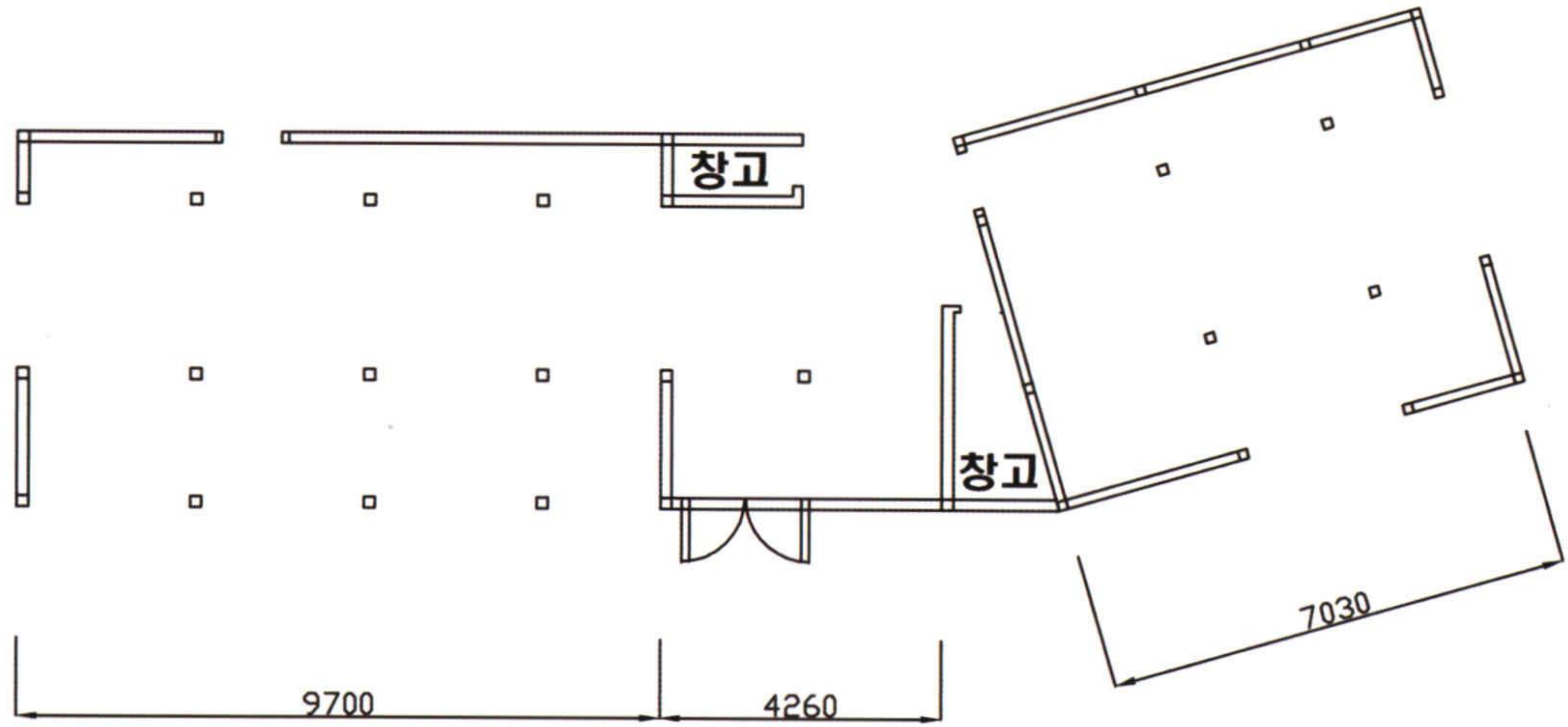
본 가옥의 안채의 툇마루는 둘째부분에 해당하는 몸채 자체에 가구를 수장하는 퇴의 본기둥 사이에 툇마루를 까는 경우에 해당된다. 안채의 안방 쪽에 반간의 폭의 퇴칸을 두어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작지만 넉넉한 배짱이 숨어있는 자리로서 한옥의 멋스러움과 여유를 볼 수 있다.

2.1.2 임대순씨 가옥의 사랑채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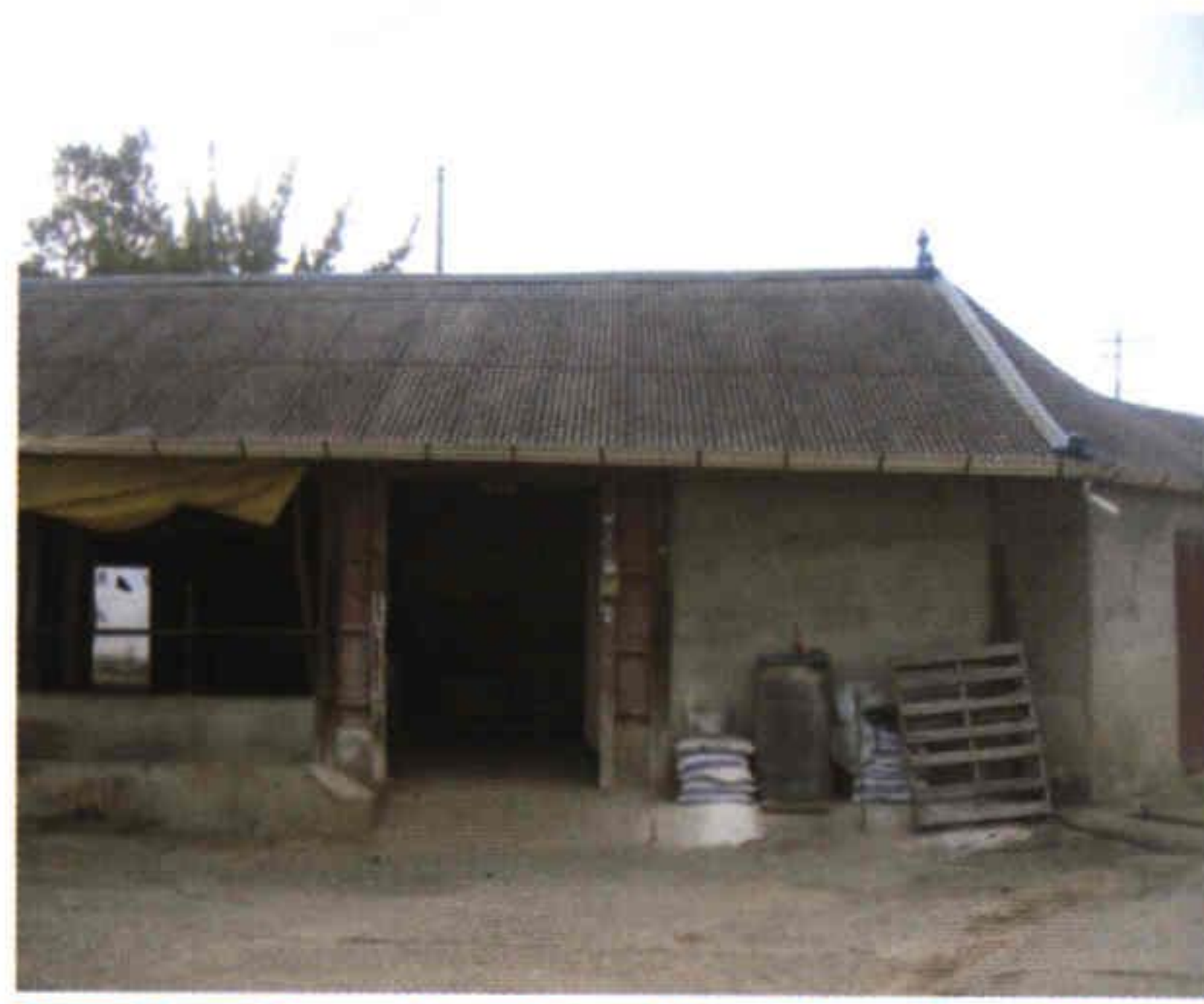
사랑채는 사랑이 팔려있는 집을 이르는 말로 보통 바깥주인이 기거하는 곳이다. 사랑채의 사랑방이란 사랑채에 팔려있는 방을 이르는 말로 바깥주인이 거처하면서 손님이나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지내는 곳이다.

본 가옥의 사랑채는 안채 남쪽으로 위치해 남향을 하고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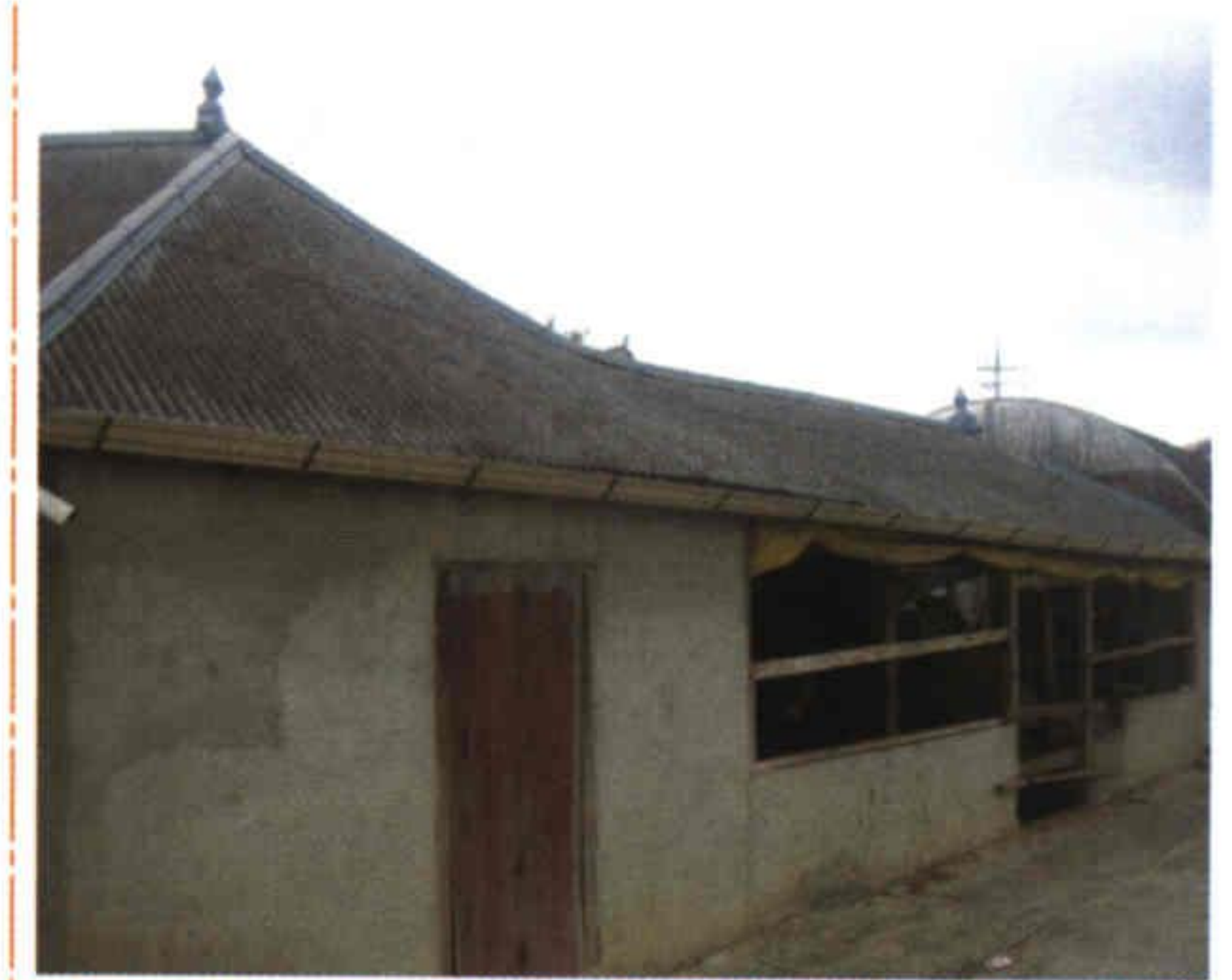
며 접객기능에 맞춰 맨 앞에 위치하여 안채를 가려주고 있다. 사랑채에는 큰 사랑, 작은 사랑, 사랑대청으로 구성되고 사랑채의 한쪽에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을 두게 되는데 이 가옥의 사랑채는



▲ 그림 7 임대순씨 가옥의 사랑채 평면도



▲ 그림 8 사랑채의 정면 전경



▲ 그림 9 사랑채의 측면 전경

많이 변형되어 있다.

현재 사랑채는 전체 공간을 띄어서 소를 키우는 곳, 축사로 사용하고 있고 축사의 가운데에 예전의 중문 또는 대문에 해당되는 문이 위치한다.



▲ 그림 10 사랑채의 내부 전경



▲ 그림 11 사랑채의 광 전경

2.1.3 광

사랑채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들어가기 전에 양측 면에 두개의 광이 위치해 있다. 크기는 적당한 광의 크기로 현재에도 창고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림 12 가옥의 외곽담

2.2 가옥의 외부 구성

2.2.1 담

담은 집둘레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올린 시설로 보호, 방어 기능과 시각적 차폐 기능을 하고 있다. 임대순씨 가옥은 가옥의 조성당시와 달리 현대식 재료인 블록을 활용하여 2m 높이로 쌓은 외곽담만 있다. 보통 안채와 사랑채를 구획해주는 내곽담은 존재하지 않는데, 외곽담도 북쪽의 담만 일부 남아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며 외부로부터 침입이 불가능하게끔 사람의 키보다 약간 높게 세워져있어 주거영역을 보다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 그림 13 가옥의 마당전경

2.2.2 마당 및 정원

마당은 집 앞이나 뒤에 평평하게 닦아놓은 땅으로 채광과 통풍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땅을 하늘과 만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여 마당을 빈 공간으로 두어 하늘과 땅 즉 자연을 담아두려고 했던 것처럼 본 가옥도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작은 마당이 있다.

사랑채 입구를 지나 가옥 안으로 들어서면 이 마당에 이르게 되는데 적당한 크기의 마당이 한적한 느낌을 준다. 현재는 여느 집처럼 마당이 질척거리지 않도록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안채 뒤편으로 북쪽 담 아래에 작은 후원이 있고 이곳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으며 작은 규모로 소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 그림 14 안채의 기단

3. 일반구조 및 환경설비

3.1 일반구조

3.1.1 기단

기단은 건물의 모양을 돋보이게 하고 습기나 침하를 막을 수



▲ 그림 15 안채의 초석

있게 지면에 흙이나 돌을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임대순씨 가옥의 기단은 석축기단이다.

3.1.2 초석

초석은 주초(柱礎)라고도 하고 주춧돌이라고도 하는데, 기둥 밑에 놓여 기둥에 전달되는 지면의 습기를 차단하고 기둥을 통해 내려오는 하중을 지면에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안채의 초석 높이는 14cm, 넓이는 20cm 정도이며, 사랑채의 초석 높이는 19cm, 넓이는 23cm 정도이다. 안채와 사랑채 초석 모두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였다.

3.1.3 바닥

마루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기둥과 기둥사이에 장귀틀을 끼우고 장귀틀과 동귀틀을 끼운 후 동귀틀 사이에 마루널을 쪽매로 끼운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다.

마루에는 1층 마루와 2층 이상의 마루가 있다. 2층 마루에는 공간 분할벽이 공간을 평면적으로 구획하는 것에 대하여 공간을 상하로 구획하는 역할을 한다.

1층 마루는 지붕이나 외주벽과 함께 생활공간을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루는 그 위에 놓여있는 물건과 이동하는 사람 등의 무게를 지탱해야하므로 그것에 견딜 만큼 튼튼해야 한다. 임대순씨 가옥 역시 우물마루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그림 16 사랑채의 기둥

3.1.4 기둥

임대순씨 가옥의 안채와 사랑채는 가구식 구조로 각기둥만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내구성을 높이고 격을 높이기 위해 적색의 주칠이 되어 있고, 기둥의 두께는 15cm 정도이다.

바닥을 그렁이질을 해서 초

석에 딱 물리도록 세워져 있어 세월이 지나도 기둥의 견고함을 느낄 수 있었다.

3.1.5 지붕가구

임대순씨 가옥은 사랑채와 안채 모두 5량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 그림 17 사랑채의 지붕가구



▲ 그림 18 안채의 지붕가구

3.1.6 지붕

사랑채의 지붕은 우진각의 형태로 과거의 지붕 재료는 초가로 추정되나 확인할 수 없고 현재는 지붕개량이 되어 슬레이트를 올린 상태이고 안채의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시멘트 기와를 올린 상태이다.



▲ 그림 19 사랑채의 지붕 전경



▲ 그림 20 안채의 지붕 전경



▲ 그림 21 사랑채의 대문

3.1.7 대문

사랑채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좌측면에 대문이 있다. 마당이나 안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대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대문을 들어와도 바로 안방이나 마당이 보이지 않게 정면에 내외 벽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마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환경설비 및 기타시설

3.2.1 취사 및 난방설비

현재 안채부엌에는 아궁이가 없었고 외부에는 굴뚝이 존재하지 않았다. 건넌방 뒤에 새 입식부엌이 생기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모두 없애버렸다고 한다.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3.2.2 장독대

안채의 뒤뜰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식재료를 담아



▲ 그림 22 뒤뜰의 장독대 전경



▲ 그림 23 뒤뜰의 장독

두고 숙성시켰던 장독이 많았다. 안채의 부엌에서 직접 뒤뜰로 나가는 출입구를 통하여 장독대로의 동선을 간결하게 만들었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장독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3.2.3 화장실

안채의 건넌방 아래에 측간 즉 화장실이 붙어 있다. 이 화장실도 원래 가옥의 조성초기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냄새나는 공간으로 가옥에서 일정거리를 떨어뜨려서 설치했기 때문이다.

4. 가옥의 풍수지리적 해석

가옥의 주산이나 현무봉에 해당되는 뒷공간은 낮은 구릉지대이다. 이처럼 주산이 낮게 되면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

좌청룡은 집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오행상 토산이며 우



▲ 그림 25 좌청룡의 모습



▲ 그림 24 임대순씨 가옥의 지형도

백호에 비해 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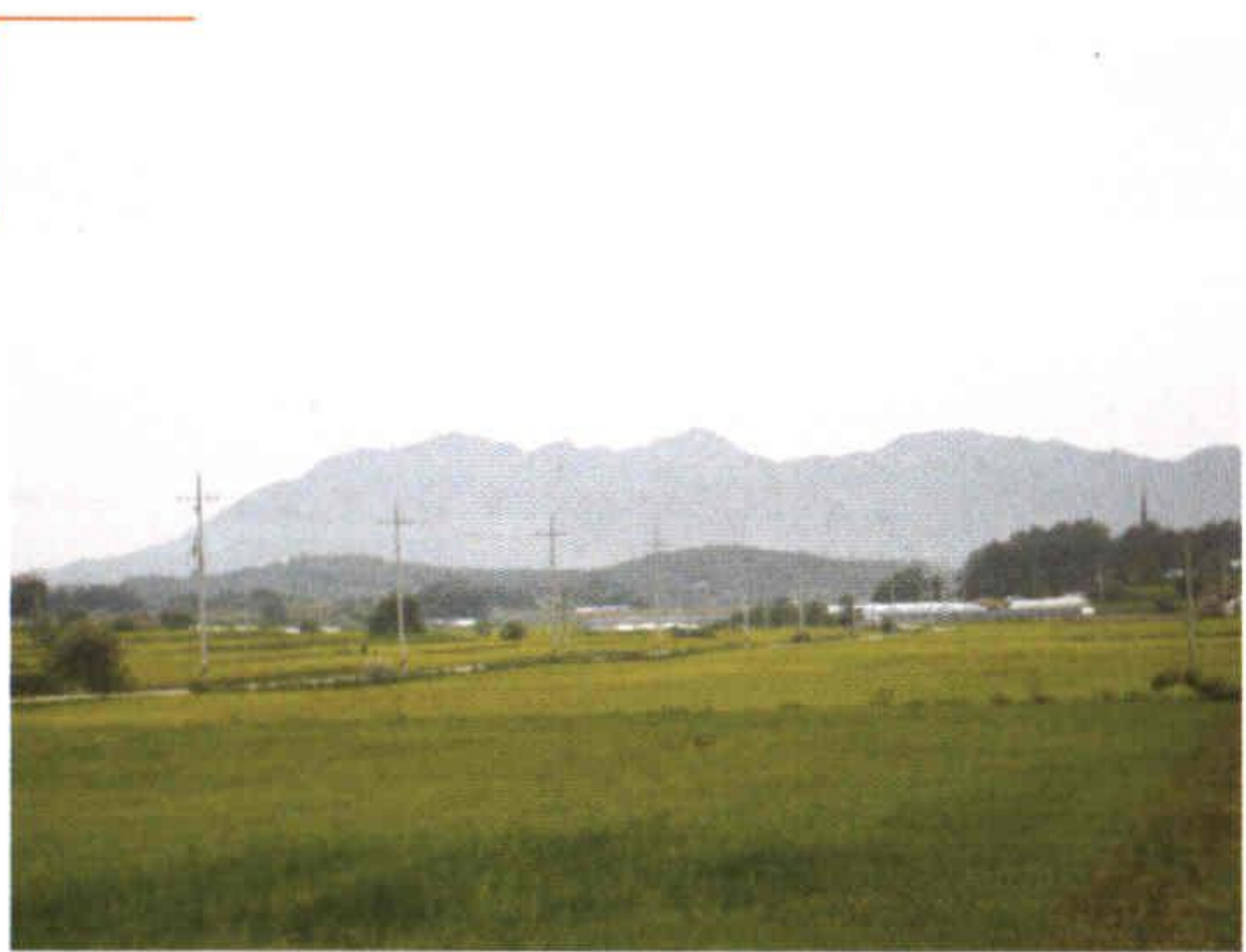
우백호는 매우 낮아 약하며 멀리서 감싸고 있다. 안산도 약하여 앞이 흰히 트여있어 비보를 위해 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이며 집이 위치한 마을의 앞으로 좌청룡과 우백호가 적당히 조응하고 있다.

4.1 임대순씨 가옥의 동서사택 해석

동서사택론이란 건물의 좌향을 결정하거나 내부구조를 결정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이론이며, 팔괘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까지 고려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는 폭이 넓다. 그러나 동서사택론을 적용할 때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풍수 이론을 고지식하게 적용하여 주변 건물이나 자연환경과는 조화되지 않는 특정 좌향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에서 발생하는 풍수적인 효과가 특정 방위에서 발생하는 효과보다 더욱 크다는 것이 바로 생활풍수의 대전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한다.

임대순씨 가옥의 좌향(坐向)은 건좌손향(乾左巽向)이다. 건물과 대문은 손문태주(巽間兌主)로써 각 동사택(東四宅)이 되며 부엌의 향은 건향(乾向)이다. 손문태주(巽間兌主)에 대한 주역(周易)의



▲ 그림 26 우백호의 모습

해석을 살펴보면, “손은 음목(陰木)이고 태는 음금(陰金)이다. 이 름하여 육살택으로 음이 음을 극하여 부녀자가 불리하고, 금목(金木) 상극으로 근골에 동통이 있으며, 남녀의 수명이 짧고 과 부가 혼자 살며 양자가 가계를 이어간다.”라고 하였다.

문주배팔조를 보면 “건의 부엌은 금목(金木) 상극으로 부녀가 요절하며, 남자의 수명이 짧고 뱃사하니 불길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음양의 조화와 오행의 상생관계를 살펴보면, 건물은 각 음(陰)으로써 부조화(不調和)가 되어 흉(凶)하다. 오행의 상생관계는 건물은 금(金)이며 대문은 목(木)으로서 금금목(金金木) 서로 상극관계에 속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보면 동서사택, 오행, 음양 모두 부조화이거나 상극 음양의 이치가 맞지 않으므로 불리한 건물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서사택이론에 의한 해석이 풍수해석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고 택지삼요로 표현되는 대지의 고저차의 대지환경 그리고 주변 산의 형세론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분	분류	위 치	동서사택	음 양	오행(五行)
건 물		건(乾)	서사택	음	금(金)
대 문		이(離)	동사택	음	목(木)
평 가			흉(凶)	부조화	상극

▲ 표 1 임대순씨 가옥의 풍수적 해석

4.2 임대순씨 가옥의 양택 해석

조정동의 양택삼요에는 배산임수 건강장수(背山臨水 健康長壽), 전저후고 세출영호(前低後高 世出英豪), 전착후관 부귀여산(前窄後寬 富貴如山)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세 가지 조건 또한 양택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4.2.1 배산임수 건강장수(背山臨水 健康長壽)

산(山)을 등지고 낮은 곳을 향(向)하라는 뜻이다.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역(逆)하면 흉가(凶家)이다. 임대순씨 가옥은 뒤편에

길한 산을 등지고 있어서 배산임수에 해당되어 길하다.

뒷산이 겨울철 바람을 막아주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며 뒷산으로부터 기를 보호받아 택지의 안정(安靜)을 찾아 천지기(天地氣)의 조화(調和)된 정기(精氣)로서 가족(家族)의 부귀영화(富貴榮華), 건강(健康), 수명장수가 약속(約束)되는 길한 배치(配置)다.

4.2.2 전저후고 세출영호(前低後高 世出英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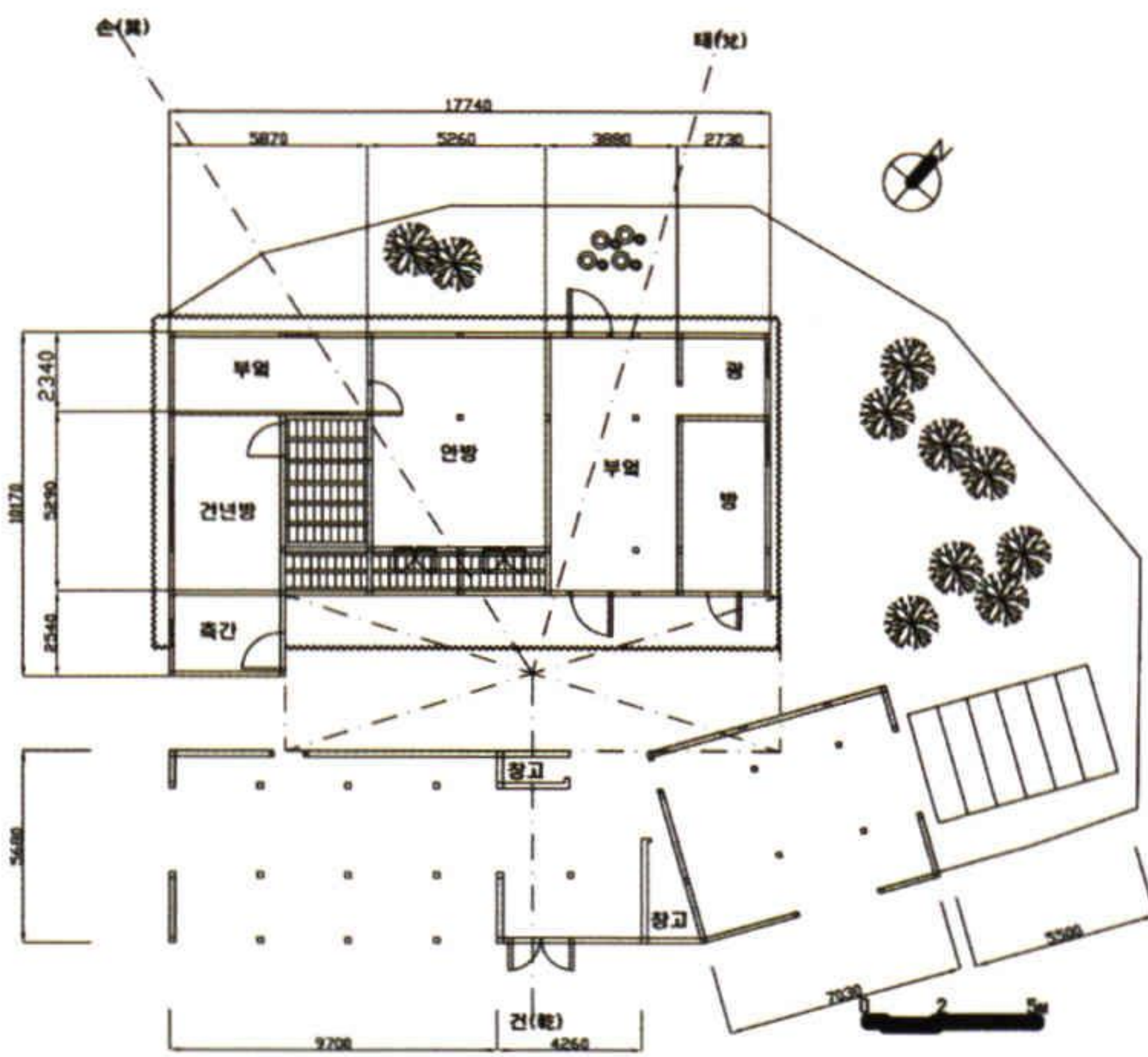
전저후고는 앞부분은 낮고 뒤쪽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옥 앞쪽으로는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뒤편으로는 높은 언덕이 있어 전저후고에 해당된다.

마당은 낮고 집이 있는 부분은 높은 모양이며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연상하면 된다. 등받이가 있어 뒤에서 받쳐져야 앉는 쪽이 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저후고에 해당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3 전착후관 부귀여산(前窄後寬 富貴如山)

출입(出入)하는 곳이 좁으며 정원(庭園)에 들어서면 건물(建物)에 비하여 정원(庭園)이 너그러이 안정(安定)감이 들어 후관(後寬)이다.

임대순씨 가옥은 지면(地面)은 비교적 네모반듯하여 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림 27 임대순씨 가옥의 배치도 및 풍수분석

홍성의 전설
+
사운고택





◀ 조병노 산소에서 건너다 본
말무덤이 있는 앞산 봉우리
모습

사운고택(士雲古宅)에 전해오는 문은선생과 충마(忠馬) 이야기

김 정 현 (동화작가 · 구항초등학교장)

우리고장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에는 양주조씨 가문의 사운고택(士雲古宅)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사운고택은 400여년의 전통을 이어오는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전통가옥이다.

이곳 사운고택은 예부터 교통과 군사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서기 660년 백제멸망 후에 3년여 동안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역할을 했던 석성산성과 학성산성이 사운고택을 앞뒤에서 감싸고 있으며, 고택이 서있는 마을 입구에는 과거 배가 드나들었던 무한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이곳 장곡면 산성리에 자리 잡은 양주조씨는 조선조 제15대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를 배출한 집안이다. 사운고택 가문은 양주조씨 4세인 문강공 조말생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다. 그 후 양주조씨 13세인 조진석의 셋째 아들 조태벽이 이곳으로 낙향하며, 양주조씨 문강공파 가문을 이어오고 있다.

사운고택이라는 명칭은, 양주조씨 선조 중에서 1800년대 후반에 문경현감을 지낸 조중세(趙重世, 1847~1893년)의 호인 사운(士雲)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조중세는 1865년에 식년시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문경현감 등을 지냈다.

조중세는 문경현감을 지내면서 기근으로 시달리는 백성을 위해, 이곳 본가에서 양식을 실어다가 나누어주며 구휼활동을 펼

쳤던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1894년(고종 31년)에는 홍주의병이 봉기했을 때에 군량미로 쌀 239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이웃과 백성을 위한 봉사와 배려의 실천에 앞장섰던 양주조씨가문의 자랑스러운 조상이다.

양주조씨 선조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덕분으로, 사운고택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400여 년 동안 온전하게 그 모습을 간직하며 내려오고 있다.

조상 대대로 숭한 인물들을 배출한 사운고택에는 아주 의미 있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중세의 할아버지인 조병노(趙秉魯, 1803~1882년)와 그의 애마이다. 조병노는 호가 문은(文隱)이며, 찰방·사헌부감찰·지평현감·돈녕부도정 등의 벼슬을 지냈던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조병노는 한때 사헌부 감찰의 임무를 맡은 적이 있었다. 사헌부 감찰의 주요 임무는 사회 각 분야를 감찰하여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외에도 임금이 대궐 밖으로 나갈 때에 동행을 하거나, 나라에 큰 제사가 있을 때에는 제감(祭監)이 되어 행사를 진행하는 임무도 있었다.

조병노는 임금이 광릉으로 직접 나와 제사를 지낼 때에 사헌부 제감감찰을 맡았다. 광릉은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이 있는 곳이다. 1855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임금을 호종하며 제관감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내었다. 이때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임금으로부터 새끼 말 한필을 하사받았다.

그 후 조병노는 새끼 말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다. 자식을 키우듯이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으며 말을 보살폈다. 어쩌다가 말이 아프기라도 하면, 말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병간호를 하였다. 말은 주인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다.

조병노가 임금으로부터 새끼 말을 하사받았을 때는 갓 젖먹이를 면했을 정도였다. 어느덧 말은 어른처럼 자라서 주인과 함께 집밖으로 동행할 정도가 되었다. 조병노가 지방의 관리로 나갈 때는 말이 든든한 동행자가 되었고, 한 몸이나 마찬가지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동고동락했다.

어느 봄날, 조병노가 고향마을을 방문할 일이 있었다. 고향을



찾는 마음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들뜨게 마련이었다. 부모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은 물론이고 어릴 적 함께 공부하며 뛰놀던 친구들 생각으로 잠도 설칠 정도였다. 조병노는 사랑하는 말과 단 둘이서 고향을 향해 출발하였다.

조병노는 말과 함께 종일토록 고향으로 향하다가 어느 고을 주막에서 하루저녁을 머물기로 했다. 그곳은 어릴 적부터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사는 마을이었다.

조병노는 주막 심부름꾼을 통해 친구에게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친구가 한걸음에 달려왔다.

“이보게, 이게 얼마만인가?”

“그동안 보고 싶었다네. 지나는 길에 얼굴이나 보고가려고 불렀네.”

조병노와 친구는 두 손을 맞잡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이 말이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그 말인가?”

친구가 조병노의 말을 바라보며 물었다.

“맞아, 바로 그 말이라네.”

“허허, 아주 잘 생겼군 그래. 혈통이 빛나는 말이라서 그런지 꽤 총명하고 건강하게 생겼구먼.”

친구는 조병노의 말을 어루만지며 칭찬이 입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말은 자신을 칭찬하는 말귀를 알아듣는 듯했다. 자신을 칭찬해줘서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다소곳하게 숙이며 꼬리를 사랑살랑 흔들며 대었다. 칭찬을 들은 말은 주막집 한쪽 마당에서 푹 쉬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두 친구는 술상 앞에 마주앉았다. 술상을 사이에 두고 한잔두잔 술을 나눠 마시며 밤이 지새는 줄 모르고 앉아 있었다.

두 친구는 이슬한 밤이 되어서야 헤어졌다. 두 친구 모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곤드레만드레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병노는 친구를 보내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자리에 눕자마자 드릉드릉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불이야! 불이야!”

모두가 잠든 새벽녘에 주막집 한쪽에서 갑자기 불길의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마른 봄 판에 바짝 말라버린 주막집 초가지붕 여기저기로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 조병노의 산소

“불이야! 불이야!”

집안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술에 만취한 조병노는 무서운 불길의 주막집을 집어삼키는 줄도 모르고 코만 드릉드릉 골고 있었다.

불길은 조병노가 잠을 자던 방에도 옮겨 붙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급박한 순간이었다.

“저 방에 아직도 사람이 있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였다.

“히잉, 히잉…….”

말이 다급하게 내지르는 울음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새벽하늘을 가득 메웠다. 말은 온 힘을 다해 두발을 번쩍 치켜들며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그 순간 말을 묶어놓은 끈이 툭 끊어지며 튕겨나갔다. 말은 줄을 끊어내고 불길에 휩싸인 조병노의 방으로 번개처럼 돌진해 들어갔다.

“히잉, 히잉…….”

말이 돌진해 들어가면서 방문이 부서져 내려앉았다. 말은 뜨거운 불길과 숨 막히는 연기로 가득한 방 안에서 단발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조병노를 깨웠다. 조병노는 아직도 잠결이었다. 말은 순간적으로 조병노의 목덜미 옷깃을 입으로 낚아채었다. 그와 동시에 다시 방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방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말의 입에는 잠들었던 조병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와아, 말이 사람을 살렸다! 만세!”



▲ 말무덤

이쪽저쪽에서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박수를 쳤다.

주막집이 모두 불에 타고 사람들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사이에 조병노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도 술 취한 모습에 눈은 계슴츠레하고 잠결이었다.

조병노는 한참 후에야 상황을 알아차렸다.

“아, 아,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너한테 진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조병노는 말을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조병노는 상황이 수습된 후, 길을 떠나며 말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너에게 나의 호인 ‘문은(文隱)’을 주겠다. 앞으로는 너를 나와 똑같이 ‘문은(文隱)’으로 불러주마. 이것은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뜻이다.”

조병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호인, ‘문은(文隱)’을 말에게 내려주었다. 말에게 자신의 호를 내려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 뒤로 조병노의 말은 ‘문은(文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조병노는 세월이 흘러서 모든 관직을 은퇴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이때에도 ‘문은(文隱)’이라는 이름이 붙은 말은 항상 조병노의 곁에 있었다.

조병노는 고향집에서 말과 함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었다. 그가 연로하여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 다음에 ‘문은(文隱)’이 세상을 떠나거든 내 산소가 바라보이는 곳에 무덤을 써다오. 죽어서도 ‘문은(文隱)’과 함께 있고 싶구나.”

조병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사랑하는 말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다. 조병노의 유언대로 말은 주인의 산소가 뵈는 언덕에 앞산 봉우리에 묻혔다.

지금도 충남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흥인동 산언덕에는 조병노의 산소와 말의 무덤이 있다. 주인이 소리 높여,

“문은(文隱)아!”

하고 부르면 벌떡 일어나 단숨에 달려올 것만 같다.

조병노와 충성스런 말은 죽어서도 함께 서로를 지켜주며 가까운 거리에 마주보고 누워있다. **HA**

기행문

민족의 숨결을 따라

정 명 순 (물양금시문학회 회장 · 시인)



중국 동북삼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대장정 I

2014년 8월 5일 새벽, 안개 자욱한 고속도로를 달려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애국가가 들려올 때 스쳐가는 감정처럼 괜스레 가슴이 뜨거워졌다.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분단의 상황에서 역사 속 활자와 사진으로 묻어 두었던 이름들. 그 이름을 찾아, 살아있는 호흡을 찾아 가는 길. 여행이 아닌 답사, 답사가 아닌 비장한 순례라고나 할까.

백야김좌진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회 청산리역사 대장정에 참여한 전국 50여명의 역사 교사들은 장장 3,000km가 넘는 답사 길에 올랐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대련, 단동, 집안, 통화, 백두산, 화룡, 연길, 도문, 영안, 산시, 해림, 하얼빈으로 이어지는 대장정이다.



대련 : 관동 법원 및 여순 감옥

단동 : 압록강단교, 조 · 중철교, 위화도

집안 : 고구려 유적,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오호묘

이도백하 : 백두산 천지

화룡 : 청산리전투 유적지와 전적비

연길 : 용정, 일송정, 명동마을, 윤동주생가, 대성중학교, 15만원 탈취비, 3·13의거 희생자묘

도문 : 봉오동전투 유적지, 도문대교

영안 : 발해 동경용천부 왕궁 유적지

산시 : 김좌진 장군 순국지

해림 : 한 · 중우의공원, 김좌진기념관

하얼빈 : 731세균부대, 안중근기념관, 하얼빈역(이토히로부미 저격 장소)

6박 7일의 쉼 없는 대장정, 각오는 했지만 생각보다 힘든 일정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하지만 누구 하나 불만 없이 경건하게 길을 갔다. 파란만장한 길을 여행 순보다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5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 동양평화를 위한 선택, 안중근의사 (대련, 하얼빈)

둘, 김좌진의 항일 무장투쟁과 죽음 (화룡, 시안, 해림)
셋, 우리 동포의 땅 연길, 민족운동의 흔적들 (연길, 용정)
넷, 만주를 지배한 우리 역사, 고구려와 발해 (집안, 영안)
다섯, 한반도의 경계 압록에서 백두, 두만으로 (단동, 이도백
하, 도문)

하나, 동양평화를 위한 선택, 안중근의사 - 대련, 하얼빈 -

요동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대련, 남하정책을 추진한 러시아
와 대륙진출을 노리던 일본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던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래서인지 대련에서 중국적 분위기는 찾기 어려웠
다. 인천공항에서 약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대련에서 처
음 찾아간 곳은 바로 관동법원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요동반도로 세력을 확대하던 일



▲ 관동법원

본은 러시아의 견제로 요동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러·
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련을 중심으로 지배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한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관동법원. 이곳에
서 안중근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외국에
서 범죄를 일으킨 조선인은 자국민처럼 일본 영사관에서 1심을

거치고 난 후, 본토의 나가사키 고등법원에서 2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중근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관동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내린다. 국제적으로 여론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 안중근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재판장
(사진은 필자)

1909년 12월 2일 일본 외무대신이 내린 지령에는

‘재판을 여순 지방법원에서 관할 할 것’

‘안중근을 사상범이 아닌 파렴치범으로 만들 것’

‘반드시 사형 시킬 것’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사형을 선고 받은 안중근은 인근 여순 감옥에 수감된다. 감옥에 들어서는 순간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가 떠올랐다. 여순 감옥은 이곳을 먼저 장악한 러시아가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일본의 손에 넘어가 증축되었다. 이곳에는 중국, 조선, 일본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탄압을 받았는데,

특히 15개의 공장이 있어 수감자들은 전쟁에 필요한 물건 생산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안창호와 신채호, 이회영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죽음을 당한 곳이기도 하다.

아들의 사형판결 소식을 들은 안중근의 어머니는 안중근 동생을 통해 수의를 지어 보내며 당부의 말을 전한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처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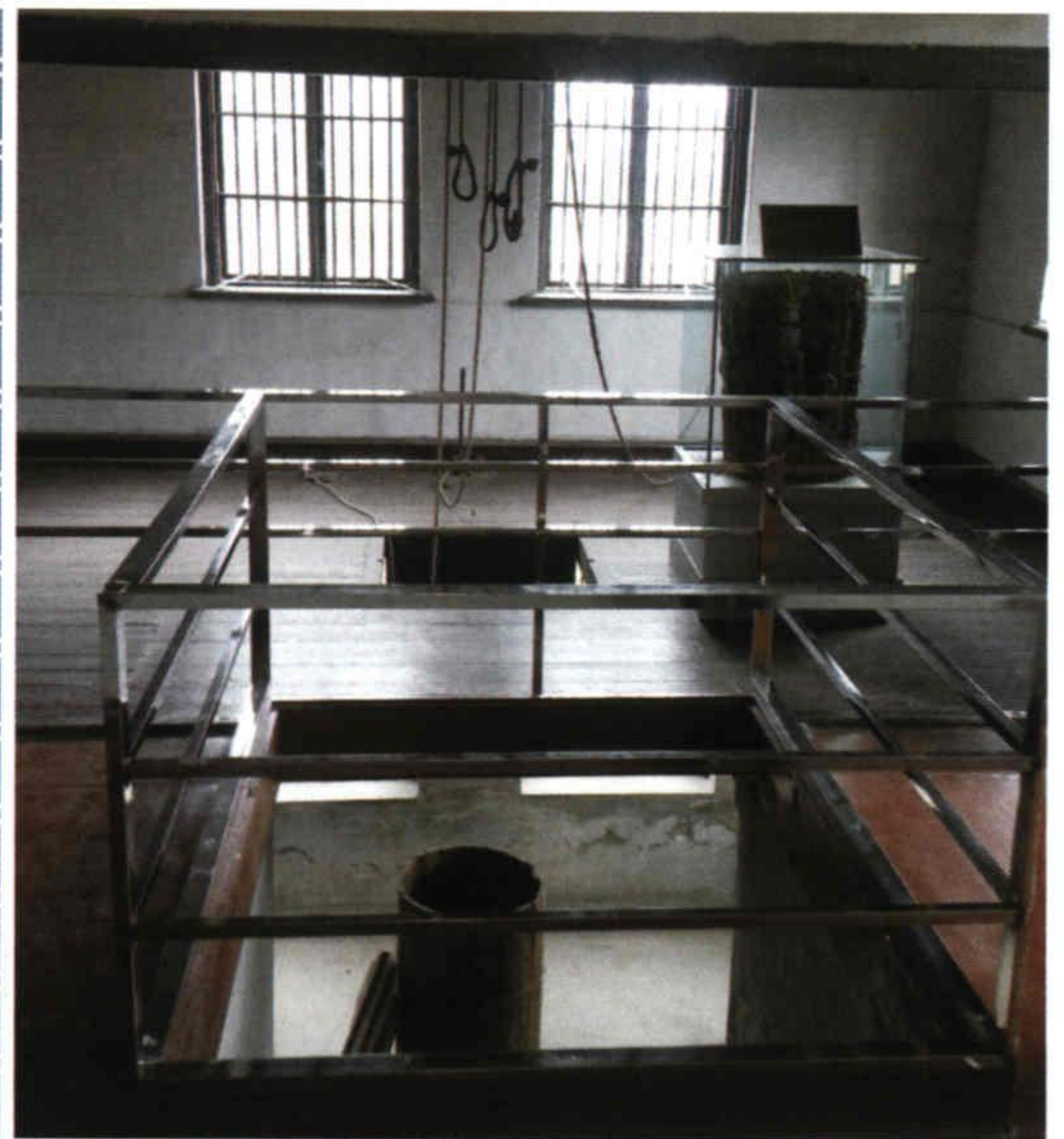
1910년 2월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안중근은 사형을 언도 받았다. 안중근은 미소를 지으며

“일본에는 사형보다 더 중한 형벌은 없소?”

심판관에게 물었다.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안중근은 항소하지 않았다.



▲ 여순 감옥(회색은 러시아, 붉은색은 일본)



▲ 여순 감옥 사형장



▲ 어머니가 지은 수의를 입은 안중근의 마지막 모습

평화의 새

- 여순 감옥 사형장에서 / 정명순

가족이 먼저입니까
 조국이 먼저입니까
 험난한 길로 가고 싶은 자 누구입니까
 이국 땅 차디찬 감옥에서 굳어진 뼈
 경천(敬天)이라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하늘로 간 안중근이여,
 사형장으로 가는 길
 걸음걸음 무슨 생각이 났혔을까요
 손가락을 잘라 쓴 혈서
 하얼빈 역에 올리던 총성
 맥없이 쓰러지던 이토 히로부미
 여전히 강한 일본 제국
 자식의 수의를 한 땀 한 땀
 눈물로 꿰매 보내신 어머니, 어머니
 죽음은 오히려 가쁜한 것,
 무겁게 밟히는 인연의 고리를 끊고
 "탕" 경쾌하게 날아오른
 평화의 새여

탕! 탕! 탕! 충성을 따라 하얼빈으로 가는 길은 멀고 멀었다. 휴게소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버스는 달리고 또 달렸다. 끝도 없이 넓게 펼쳐진 땅엔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다.

산시를 출발하여 약 5시간 만에 하얼빈에 도착했다. 중국보다 러시아에 가까운 분위기를 거리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하얼빈은 중국 흑룡강성 최대의 도시로 송화강을 끼고 발달하였다. 하얼빈은 만주족어로 ‘그물 말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 도시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곳이기 때문이다.

1909년 10월 하얼빈역 1번 승강장, 조선 국권 강탈을 위해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조선에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이 쏜 총에 맞아 쓰러진다. 가슴에서 태극기를 꺼내 휘두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안중근. 저격지점에는 ‘△’,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진 지점에는 ‘□’로 표시를 해두고 있었다. 하얼빈역 건물 한쪽에는 작은 기념관을 마련하여 동양 평화를 외치던 안중근의 뜻을 기리고 있었다.



▲ 하얼빈역 안중근 기념관



▲ 하얼빈역 저격 지점

하얼빈하면 지나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또 있다. 바로 731 세균부대가 그것이다. 일왕 히로히토의 칙령으로 설립된 731세균부대는 의사 이시이 시로가 첫 부임을 하면서 생체실험과 세

군무기 개발을 담당하던 곳이다. 중국인, 조선인, 소련인이 주로 희생되었으며,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이 실제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간은 물만 먹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증류수만 마시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피를 얼마나 흘리면 죽는가? 죽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상의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며 회복 방법은 무엇인가?
독가스를 살포하면 어느 정도 효과, 몇 시간,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바닷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절단된 사지를 반대쪽에 봉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뇌, 폐, 간을 제거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체실험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음산함이 감도는 건물 안에는 일본군이 감추려했지만 결국은 세상에 드러난 사실들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 731세군부대(현재 박물관)



▲ 생체해부 실험 모습

패전이 임박하자 일본군은 이 부대의 실체를 숨기려고 하였다. 모든 증거들을 없애버리고 자료만 빼돌려 철수했던 것이다. 하지만 생체실험 사실은 이곳에 주둔한 소련에 의해 밝혀졌고, 이 사실은 미국에도 알려지게 된다.

결국 A급 전범으로 처벌받아야했던 이시이 시로는 모든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미군과 거래를 하고 면죄부를 받는다. 생체실험 자료를 미국에 넘기고 러시아에 넘기지 않는 대가. 이 결과 731세균부대의 간부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일본 의학계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시이 시로는 도쿄대학의 학장까지 지냈으며, 후에 녹십자라는 거대 의료회사를 창립하게 된다.

붉은 벽돌

정명순

어디서 보았던가 이 붉은 빛
피로 빚어진 이 벽을 어디서 보았던가
여순에서, 하얼빈에서, 서대문에서
조국을 사랑한 죄로
각혈로 버무린 벽돌
서대문 형무소의 붉은 피가
여순을 거쳐 만주벌판으로 하얼빈까지
강물처럼 흐르며 울음을 토해낸다
이름, 이름, 이름 없는 이름들
어디서 보았던가
새아침을 끌고 나올
붉은 노을 빛

〈다음호에 제2편이 이어집니다.〉 

나의 삶 나의 예술

+

귀촌 10년차 생태미술가 한길순 씨



형광등 보다 달빛,
들꽃과 대화하는 생태미술 선생님
할머니도,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오감으로 즐기는 미술놀이 학습

조 성 미 (홍성문화 편집위원장)

〈 4월 24일 - 봄바람 〉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는 사이, 바람의 모습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초봄엔 겨울인지 봄인지 헷갈리는 바람이 불다가 봄의 중간을 넘어가서는 하도 사랑겨려서 하품을 부르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바람과 놀려하는데... .. 어떤 바람이 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지 기대가 됩니다.

공원으로 가면서 “산토끼 해요” 하는 아이들과 산토끼를 하기로 합니다. 술래 둘의 발목에 고무줄이 걸리고, 한쪽의 같은 방향의 발의 고무줄을 밟아 높이를 다르게 하고 한 줄로 선 아이들이 달려와 뛰면서 발목에 고무줄을 걸고 앞 고무줄을 넘어서 뛰고, 발에 걸린 고무줄을 폴짝 뛰어 넘어서는 겁니다. 산토끼 노래에 맞춰 한명씩 뛰어 노래가 끝나면 점점 고무줄 높이가 올라가면서 뛰기를 합니다. 점점 높아지는 고무줄에 아이들은 걸려 넘어지면서... .. 허벅지에 걸린 고무줄을 넘기가 버거운 아이들은 손으로 내리고 뛰어넘기도 하다가 “너무 높아요” 하면 그냥 뛰어넘기와 서서 다리 올려 넘기를 하다가 가슴까지 높아진 고무줄은 조금씩 내려오면서 림보로 옮겨 갑니다.

그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더워할 때 시원한 바람을 찾아 나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찾을까? 란 질문에 “꽃이 흔들려요” “나무 끝이 흔들려요” “얼굴에 느낌이 있어요” 등등 답을 합니다. 그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가웃거리는 아이들에게 가벼운 망사 천을 주고 들어보게 합니다. 스르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천을 봅니다. 그것을 바람의 모습이라 하며, 천을 바라보며 여기저기 바람을 찾아다니다 돌아옵니다.

오늘의 날씨에서 느낀 느낌을 파스텔 색으로 바르고, 문질러 표현합니다. 색을 만들면서 문지르기에 빠진 아이들은 발라진 색에 덧칠을 하고 문지르기를 하고, 색 섞기에 빠져듭니다. 도화지 전체에 색을 바른 위에 오늘 보고 느낀 바람을 표현합니다. 가늘게도, 굵게도, 환하게도, 어둡게도... .. 입맛에 맞게 표현된 바람은 길게도, 짧게도, 둥글게도, 직선으로도 표현됩니다.



생태미술가 한길순(50세, 홍동면 금평리)씨가 작성한 수업보고서의 전문이다. 한사랑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진행한 지난 4월 24일 치 수업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써내려간 수업보고서만 읽어도 그날의 수업 장면이 영상처럼 떠오른다. 사실 생태미술은 좀 낯설었다. ‘생태’도 알겠고, ‘미술’도 알겠는데 두 단어를 조합하니 알듯 말듯 아리송했는데 수업보고서를 읽다보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일주일에 한번, 매주 목요일이면 그는 열 일 제치고 아동센터 아이들을 만나러 읍내로 나간다. 명목은 생태미술 수업이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놀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수업을 지향한다. 그는 교사이면서도 아이들을 통해 배울 때가 많다고 말한다.

그는 ‘한길순’이라는 본명보다 ‘작은산’이란 생태이름으로 불러 지길 원한다. 그래서인지 지인들 사이에서 그는 ‘작은산’으로 통한다. 심지어 본명을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을 정도다. 그의 수업을 듣는 아동센터 아이들도 ‘작은산’ 혹은 ‘작은산선생님’이라 부른다.

‘작은산’이란 생태이름은 서울에서 생태미술을 공부하던 동아리 활동에서 얻었다. 여성환경연대의 숲 안내자 강좌를 통해 만난 지인들과 마을의 산과 들을 답사하면서 나무와 풀과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 곤충과 새들을 조사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다. 그가 속한 모임의 이름이 ‘작은 산’이었는데 모임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태이름이 되었단다.

지난 6월 4일 햇볕 뜨거운 한낮에 그가 살고 있는 흙집을 찾아갔다. 홍동면 금평리 신선당마을 얇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흙집. 꼬불꼬불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가는 비좁은 농로는 고개를 하나 넘어 집 근처 밭 자락 앞에서 끊어졌다.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려서니 잡풀 사이로 보일 듯 말듯 흐릿한 오솔길이 낯선 방문객을 안내한다.

집주인은 외출 중이다. 마침 집 앞 농로 옆에서 노부부가 쟁반에 겹게 익은 오디를 따놓고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은산의 이모님 내외라고 했다. 수원에 사시는데 오늘 새벽에 내려와 이렇게 오디잔치를 하고 있단다. 입술에 꺼멓게 오디 물을 잔뜩 물들이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으시는 이모님 내외는 무척 즐거워보였다. 잠시 뒤 우리 뒤를 따라 작은산의 차가 들어왔다. 이웃 문당리 마을에서 에너지순환모델 체험 집을 짓는 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오는 길이라고 했다. 홍동의 생태건축협동조합 <얼뚱>의 일인데, 조합원으로서 가구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작고 마른 몸집, 화장기 없는 맨얼굴은 이미 햇볕에 익어있다. 밀짚모자를 쓴 그는 영락없는 시골 농부의 모습이다. 맨손으로 일을 했는지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풀물이 들어있다. 귀촌 10년차이니 도시물이 쏙 빠질 만도 하다.

수원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쫓 살아온 그는 10년 전 남매를 데리고 금평리 김애마을의 농가를 빌려 귀촌했다. 농사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시골집에 살면서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 팔아볼 요량이었던다. 하루에 밥공기 하나씩만 팔아도 밥은 먹지 않겠는가 정도가 생활대책의 전부. 뒤늦게 생태미술을 공부하면서 자연과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이 무엇보다 간절했다. 거의 무작정에 가까운 귀촌이지만 만족스러워 보인다. 10년 새 두 남매는 성장하여 엄마 품을 떠나고 지금은 혼자다.

지금 살고 있는 7평짜리 흙집은 2년 전 생태건축협동조합 <얼뚱>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지었다. 그가 소개하는 '어스백 하우스' 공법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벽돌 대신 양파망에 흙을 넣어 벽을 쌓는 방식이다. 미국 나사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를 가져갈 수 없는 우주공간에 지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다. 집은 단출하다. 구들을 놓은 작은 방에 더 작은 마루방을 덧달아 아궁이를 설치하고 그 옆에 작은 싱크대를 놓아





주방을 꾸몄다. 주방 옆에는 간단히 씻을 수 있는 목욕탕이 있고, 물동이가 이채롭다. 물동이에 필요한 만큼 물을 받아서 쓴다고 했다.

그의 살림살이는 더욱 놀랍다. 일단 냉장고가 없다. 가전제품은 노트북과 핸드폰, 핸드폰충전기, 작은 LED조명이 전부다. 전에는 조명도 쓰지 않고,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최근 생태건축조합에서 LED스탠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형광등 같은 전기조명이 없으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그리 불편하지도 않다고 한다. 예전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달빛이 생각보다 밝다는 사실이다.

그의 흙집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 창문인 것 같았다. 방의 앞뒤로 두 개의 창을 내었는데, 겉은 유리창문을 달았고, 가운데 아주 소박하면서도 멋들어진 커튼을 매달았다. 모시천에 손뜨개 장식을 단 커튼은 그대로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그리고 안쪽에 독특한 장식문을 달았다. 공사장에서 버려진 문짝을 재활용한 작품이다. 달빛을 들이기에 안성맞춤이다. 화장실도 문밖에 생태화장실 하나뿐이다. 생태화장실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거름을 얻는다.

집주변은 꽃과 나무, 오이, 콩 같은 농작물을 키운다. 아기자기한 화단에는 큰꽃으아리, 낮달맞이 같은 소박한 제철 꽃이 피어있다. 한적한 시골생활이 외롭지 않은지 물었다. “이렇게 꽃도 많고, 나무도 많은데 뭐가 외롭냐?” 하며 외려 반문한다.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이렇게 살다보면 꽃하고도 말을 하고, 잡초하고도 대화가 된단다. 눈만 뜨면 얼른 나가보고 싶어진단다. 자연은 그렇게 그의 벗이 된 것 같다.

그는 대학에서 아동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쪽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에게 빈집을 소개해주고 귀촌의 길잡이가 되어준 이환의(홍동 금평리 김애마을, <농부 이반의 교육농장> 운영자)씨가 작은산의 미술교육 경력을 눈 여겨 봤다가 지역의 학교

선생님 등을 소개시켜 주어 방과 후 미술지도, 아동센터 생태미술 강사 등 여전히 그림을 가르치는 일은 그의 주업이다.

그는 철저히 실용주의 예술가를 지향한다. 벽에 걸어놓고 보기만 하는 미술에는 별 흥미가 없다. 사람들은 흔히 미술이라면 회화를 먼저 떠올리지만, 생각해보라 회화는 작품을 만들면 액자에 넣어야 하고, 그걸 걸어둘만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관상용 그림보다는 쓰임새가 있느냐를 더 먼저 생각한다. 예를 들어 문고리, 커튼, 카펫 같은 살아가는데 쓰임새가 있는 사물에 예술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즐겨한다. 벽화그리기, 간판 디자인, 가구 인테리어 등 그는 자신의 미술적 재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어느새 그는 흥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미술활동가가 되었다. 요즘은 흥동면 신기리 반교마을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개설된 경로당 미술수업에서 이 마을 8명의 할머니 화가들과 행복한 미술활동을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이들, 아동센터,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그것을 미술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미래의 계획 같은 건 따로 없다. 하루하루 자족한 삶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팔팔 나오는 보일러도 없고, 한여름에도 얼음을 만드는 냉장고도, 밤이나 낮이나 환하게 켜놓고 사는 형광등도 없는 생활.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전기와 문명에서 겨우 한 발짝 떨어져 사는 삶인데도 그가 실천하는 생태적 삶이 주는 울림은 크다. 편의성을 앞세워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전자제품과 갖가지 상품들을 우리 생활에서 조금씩만 밀어내도 자연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것을 작은산은 직접 실천으로 보여준다. 자연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방법을 말이다. 



특별기고 - 패션스토리 I

옷은 언제부터 입었을까?

김 기 연 (청운대학교 패션디자인 섬유공학과 외래교수)



옷은 언제부터 입었을까?

옷은 언제부터 입었을까?

왜 입었을까?

옷을 언제부터 입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지만, 유물 연구를 통해 기원전 10만년에서 5만년 사이일 것으로 추측하고, 주위 환경으로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추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당시의 옷의 제작방법은 먹고 남은 동물의 가죽을 기름으로 문지르거나 연기에 그을려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용하였을 것이다. 기원전 3만년쯤이 되어서야 돌칼로 가죽을 자르고 동물의 뼈로 만든 바늘로 꿰어 옷 다운 옷을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이 인류 최초로 바느질해서 입은 옷이 소매가 없는 튜닉(Tunic)이다. 물론 남, 여 구별은 없다. 튜닉의 재단과 바느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의 가죽을 앞과 뒤의 2장으로 알맞게 재단한 다음 어깨 부분을 함께 꿰매어 완성하였다. 식물의 줄기를 꼬거나 펴서 천을 만들거나, 동·식물의 털을 가락바퀴로 꼬아서 실을 만든 다음 베틀에 넣어 천을 짜 의복으로 제작하는 방법이 날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증거가 스위스 호저에서 발굴된 마직물 의복이다. 이 발굴로 인해 10000년 이전의 신석기 시대에 이미 마류와 동물의 털에서 실을 뽑아 직물과 어망을 직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기원전 4~5000년쯤 중국에서는 누에의 고치에서 실을 뽑아 비치고, 반짝거리는 섬세한 천인 비단을 짰고, 또한 거의 같은 시기 인도에서는 목화를 수확하여 섬유를 모아 실을 잣고 천을 직조하여 면직을 생산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인류는 적어도 5000~10000년 전부터 마, 모, 견 등을 이미 의복 재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옷의 기원 : 인간이 옷을 입게 된 동기는 인간 본능, 생존을 위해 필수이나 이것 외에도 두려움, 미적 아름다움 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이성에 대한 성적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착용했다는 본능설에서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에 대한 학설은 신체 보호성, 장식성, 정숙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호설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생존의 영역을 넓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덕목으로 볼 수

있다. 외부환경이라 하면 추위나 더위, 또는 독충이나 외부의 자극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피나 동물의 가죽, 풀잎 등을 사용하여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이나 사회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보호 욕구로 복식을 착용하게 되었다고 본다. 전쟁의 승리로 획득한 전리품 또는 사냥에서 획득한 짐승의 이빨이나 뿔 등으로 자신의 인체에 장식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였다. 미신적 기능인 토테미즘(totemism)에 기초하여 악령의 침투나 신의 저주를 예방하기 위해, 또는 복식을 통한 위압감의 표시인 테러리즘(terrorism)에 기초하여 적에게 공포를 느껴 달아나게 하거나, 경고하기 위해 복식을 사용함으로써 미신이나 종교적 욕구를 만족하게 한다. 그 외에도 출산, 성인식, 결혼, 장례와 같은 의식의 위엄, 기쁨, 슬픔 등 심리적 공감과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의식의 표시로서 특별한 장신구와 복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에 의해 착용된 의복은 후에 각 사회의 풍속과 관습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장식성은 자신의 신체를 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로 초기 인류는 인체에 문신(tattooing), 상흔(cicatriciation), 인체변조(deformation 또는 body-plastic), 피부 채색(painting), 제거(mutilation) 등으로 몸에 직접적인 장식을 하다 점차 주변에서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식품을 인체 일부에 장식을 한데서 옷이 생겨났다고 보는 설이다. 즉, 본능에 따라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서 의복 착용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신체 장식설(ornament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이 의복을 착용하는 목적은 몸을 아름답게 꾸며서 타인에게 좋게 보이게 하여 인상을 관리하는 동시에 자존심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숙설(modesty theory)은 「구약성서」에 기초를 둔 수치설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인간이 의복을 착용하는 목적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우수함을 감추거나 타인의 관심을 스스로 삼가기 위해 인체의 치부를 가렸다는 이론이다. 이와는 상반되는 측면에서 비정숙설(immodesty theory)로 옷의 착용 동기를 설명하기

도 한다. 이는 성차설에 근거한 것으로 서로 다른 이성끼리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감싸거나 장식하는 데서 옷의 입기 시작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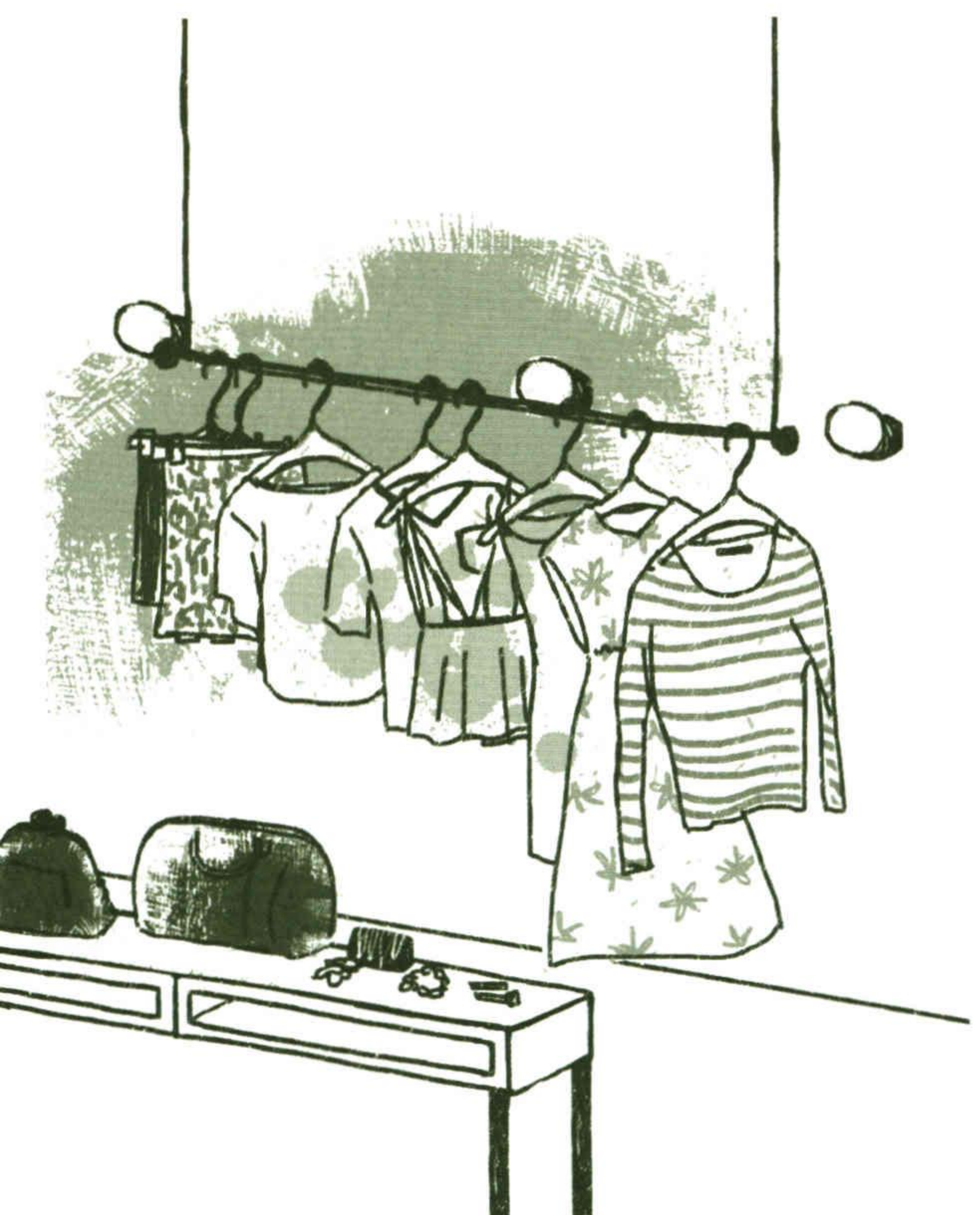
옷의 기능 : 현대복식이 갖는 의복의 기능은 인간이 옷을 입게 된 원인과 함께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대복식은 보호적 목적과 실용적 목적 등의 구체적 목적을 위한 기구적 기능(instrument function)과 주로 감정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을 가진다.

※ 방호

인체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에 초점을 둔 기능을 의복의 방호기능(protective function)이라 한다. 전통적으로 의복은 신체 적응을 돕는 기구로서 착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신체활동을 증진하며, 쾌적감(physical comfort)을 높인다. 또한, 의복은 사회 적응을 돕는 기구로서 사회의 도덕 기준이나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적합한 의복을 착용하여 착용자는 심리적 불안감을 피할 수 있다. 즉 의복은 신체보호는 물론 심리 보호 기능을 가진다. 추위나 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입는 방한복과 방서복이 대표적인 방호복이며, 그 외에 특수 직업에 종사하여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작업용 보호피복과 격렬한 스포츠 활동 속에서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해방지용 보호피복, 전투용 특수 보호피복, 고무장갑과 같은 일상용 보호피복 등이 있다.

※ 적응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편의를 위해 착용한 옷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생활을 만들고, 인체의 행동을 추진하여 개체를 동화시키는 것을 적응기능이라 한다. 작업복과 같이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작업의 종류, 동작의 특이성에 따라 특별히 고려되는 동작에 적응과 착장된 피복의 형식, 기능, 외관 등이 자연환경, 사회 환경에 적합하게 조화되는 환경적응으로 나눌 수 있다. 기후, 사회 환경, 주거환경에 대한 적응은 환경적응에 속하며, 그



자체가 하나의 주거이자 생명유지 장치라 말할 수 있는 우주복은 대표적인 환경적응을 위한 의복이다.

※ 심미

의복의 심미적 기능(aesthetical feature) 역시 복식기능의 하나로 만들어진 피복의 1차 조형미에 착장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조형미가 더해져 완성된다.

복식조형은 인체에 착장된 상태이므로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동태미를 표현하는데 특히, 긴 소매, 옷자락, 늘어뜨리는 천 등이 감각적 동태미를 유발한다.

※ 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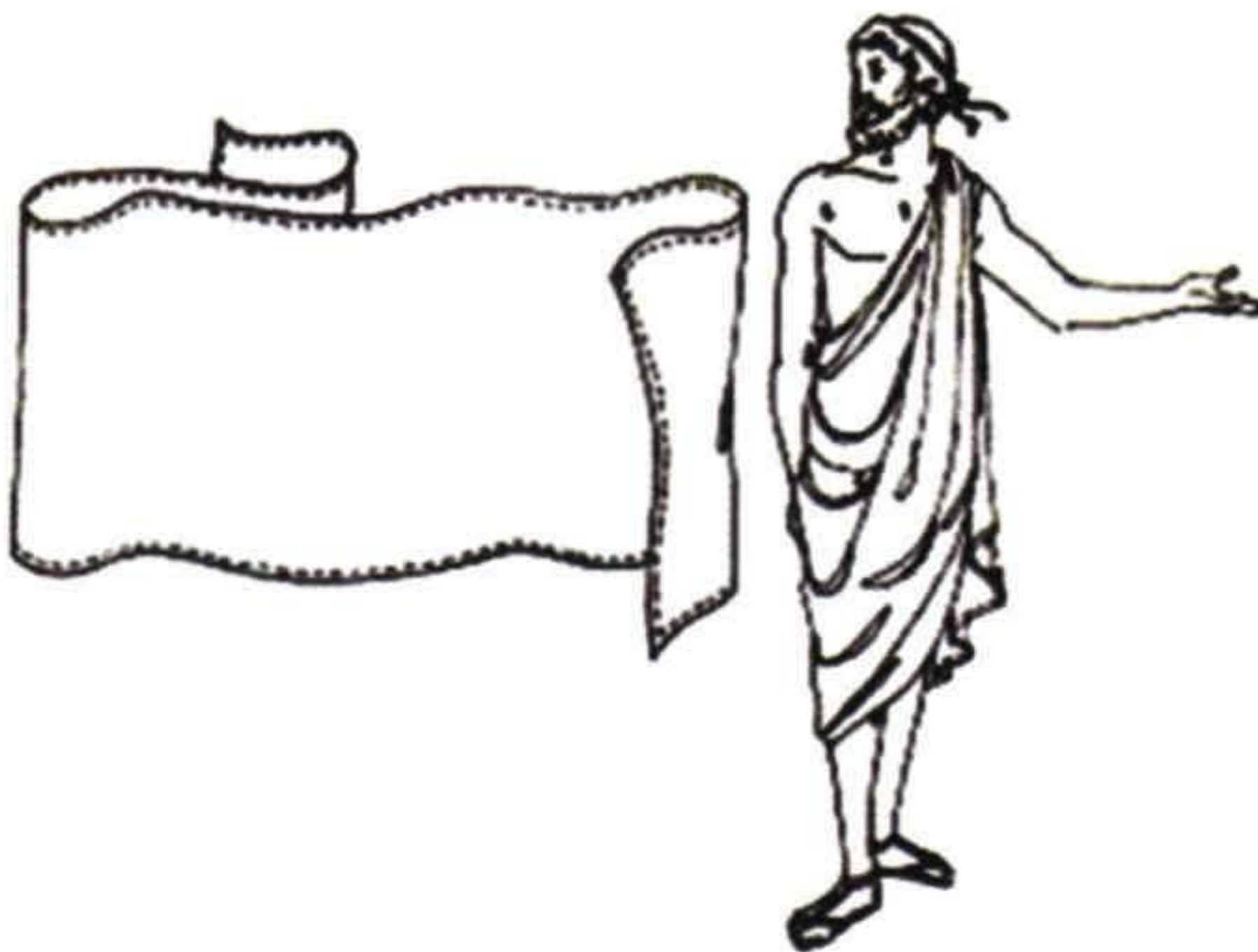
용의는 인격을 복식 위에 자연스럽게 표현시키는 특색을 갖는데, 특히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그 외관, 자태, 분위기 속에서 자연히 그 사람의 됨됨이가 풍겨 나온다. 복식을 통해 착장자의 성심, 품위, 격식, 위용 등과 성격, 풍채, 모양을 나타내는 용의 기능(dignifying function)은 복식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 착장자의 본질이 복식을 매체로 하여 나타난 것을 말한다.

※ 표시

교복, 경찰복, 군복 등과 같이 주로 복식의 외관적인 상태에 의해서 착장자의 소속, 직업, 계급, 역할, 행동 등을 명시해 주는 것을 표시기능(symbolic function)이라 한다. 인도의 터번(turban)이나 우리나라의 붉은 땀가죽과 같이 주로 형태, 수량, 색채, 재질 등의 특이성에 따라 다른 복식과 구별된다.



▲ ▼ 권위형



옷의 형태 : 옷은 그 옷을 입은 민족, 주거지역, 기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형태가 있어 매우 다양하나 옷의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권위형(Drapery)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달된 의복 형태로 자연스러운 미적 특징을 지닌다. 고대 그리스의 키톤(chiton)이나, 고대 로마시대

의 토가(toga)와 같이 한 장의 천을 꿰매지 않고 몸에 감아 두르는 형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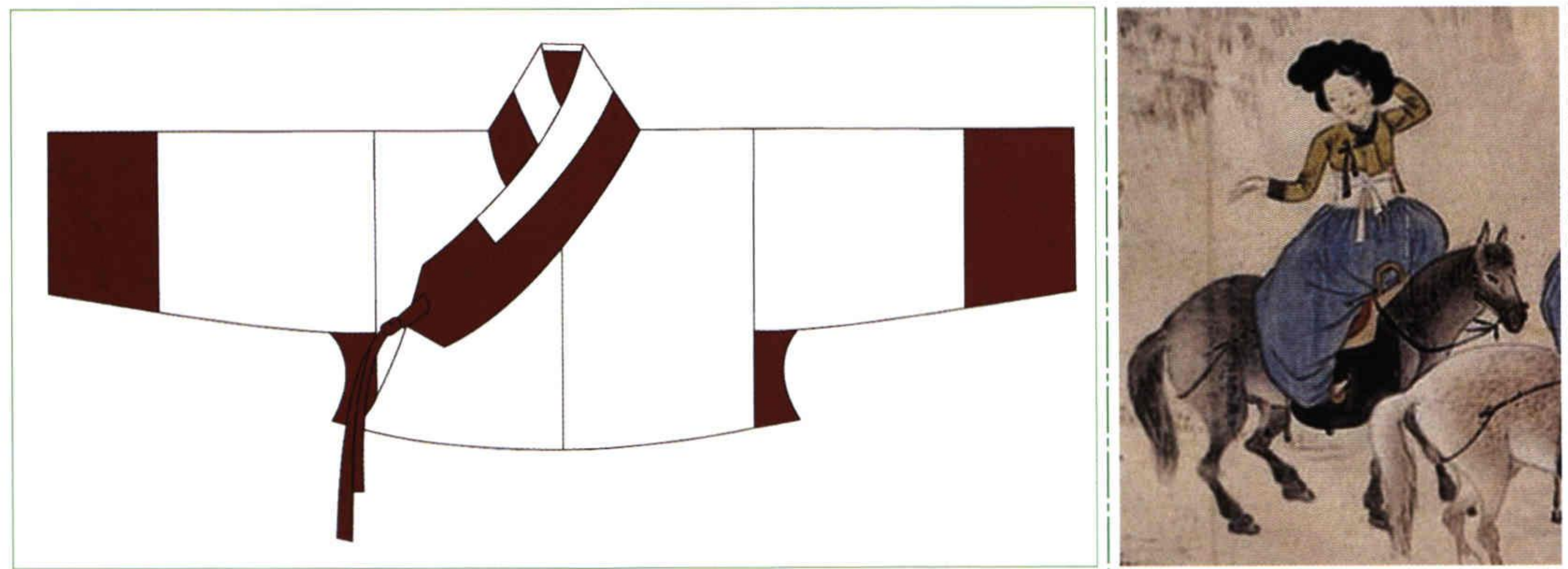
※ 관두위형(Pancho)

주로 중, 남미에서 발달한 형태로 멕시코의 판초와 같이 천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앞, 뒤로 천을 늘어뜨리고 벨트나 끈으로 고정한 형태이다.



※ 전개형(Caftan)

우리나라의 전통복식인 한복과 같이 옷의 앞을 저고리나 두루마기와 같이 터서 양어깨에 걸치고 앞을 여미는 형태를 지닌다. 몽골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달한 형태이다. 서양에서는 중세 말엽에서야 등장하는 형태이다.





▲ 통의형

※ 통의형

서양 의복의 기본형으로 유럽에서 발달하였으며, 중세 의복 문화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다. 양옆을 팔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분을 두어 껴매거나 소매를 단 입체형의 튜닉(tunic) 형태를 말한다.

※ 각의(Trousers)

하반신 의복으로 양쪽 다리를 따로 넣을 수 있도록 감싸는 형태의 옷을 말한다. 기원은 몽골에서 아프리카를 걸쳐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주민들이 주로 착용한 형태이다. 유목생활과 기마 생활에 적합하도록 발달한 형태이다. 



▲ 각의

길

황 정 옥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 · 시인)

오랜 기다림 끝
누군가 서 있을 거란
기대도 없이
무작정 가는 길엔
무엇이 있을까

휘어진 길을 따라
경계를 구분하는
노란 황색 선
침묵으로 누워 몸살을 앓고

먼 하늘
갈매기 나는
차창 너머 바다엔
어부 잃은 배 한 척
외로이 선착장을 지키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들
안개 속에 가려진
이정표 찾아내어
흔적 희미한 옛 기억 앞세운 채
피곤한 발걸음 재촉할 수 있을까

불면으로 지새운 긴 긴 밤
갈피없이 흔들리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길
지천명의 언덕, 환하게 웃고 있는 누군가 보이는데
쉬어가는 시간은 자꾸만 잤아진다

시 & 수필
+
순백의 목련화가

순백의 목련화가

은송 전 위 영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 · 시조시인)

순백의 목련화가 소복을 입었더냐
우리가 즐겨입던 흰옷을 자랑하니
순결한 배달민족의 우리정서 넘치네

자색의 목련화야 여인의 표상이냐
쪽빛깔 저고리에 자색의 치마둘러
아낙네 고상한 품위 너를 보면 알리라

목련이 지고나니 벚꽃이 만발하고
철쭉이 지고나니 장미가 한창이네
사철에 꽃피는 곳은 우리강산 딱 이네

무궁화 나라꽃은 우리의 기상일세
곱기도 한복처럼 순수한 자태이니
민족의 아름다움을 나라꽃이 빛나네

시 & 수필

+

오늘 밤은 제발 떠나지 말아요

오늘 밤은 제발 떠나지 말아요

신 소 대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장 · 시인)

오늘 밤 별들이 밤새 노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 밤 제발 떠나지 말고
저 별을 같이 바라보아주세요

어둠이 드리운 창문 열면
사랑의 꿈들이 마구 속삭이고 있어요
당신이 밤에 요정으로 찾아들면
오늘 밤 별을 따서 손에 쥐어주고 싶어요

우주와 같은 크기의 마음의 노래가 있다면
당신을 위해 춤을 추고 싶어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꽃의 향기 같은 마음의 향기를 드리고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다면
별빛이 그윽하게 빛나는 마음을 가지겠어요
당신의 기다림이 내 기분을 항상 들뜨게 하듯

오늘 밤도 내 곁으로 찾아오는 별빛이
당신 기다리는 내 마음 다시 들뜨게 해요
오늘 밤은 제발 떠나지 말아요

시 & 수필
+
잠 못 이루는 밤

잠 못 이루는 밤

주 선 미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밤 새 몸을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다가
꿈인 듯 생시인 듯
창밖을 내다보았다

온 땅이 소리없이 들썩이고
어둠속에 서 있던 나무들도
몸을 흔들며 속삭인다

봄 밤
움트는 새 순들

제비꽃

윤 은 진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한줌 흙이 아니라도 좋아
그저
실뿌리 몇 뿌리라도
내릴 수 있다면
어디든 집이 되리라
지난 가을이 데려다 준
보금자리는 조그만 틈
오래된 시멘트 밑으론
달콤하고 거친 흙이 가득하다
차갑고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여리고 이쁜 꽃을 피웠다

보랏빛 제비꽃,
제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봄을 기다렸다
다시 하얀 이밥을
가득 쏟아내고 떠나가지만
언제나 봄을 기다린다
다시 봄은 오고 간다
그리고 또 봄은 온다

독자기고 - 시 & 수필
+
봄을 찬양함

봄을 찬양함

최 규 원
(홍성경찰서 · 홍성문화원 회원)

겨울바람에 물리어
이 구석 저 구석으로 흩날리던
가을 찬바람에 떨어진 낙엽을 헤치고
파아란 싹이 고개를 내민다.

가녀린 듯 여린 몸매를 하고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채로
살포시 두 눈을 감은 듯
새순이 봄 속에서 태동을 한다.

흙속에 묻히어 빛을 잃고
차디찬 가운데 몸소리 쳤지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거름이 되기 위해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봄을 맞이한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생명을 키워야 하고
그 시간이 다하면 어미의 모태가 되어 죽어가지만
네 육신은 거름이 되고 그 거름으로 생명을 키워
또 다시 찾아올 계절을 위해 노래하리라.

독자기고 - 시 & 수필
+
기다림

기다림

김 정 명
(화가 · 홍성문화원 회원)

어여쁜 선생님
도서관에 일찍 갔어요
선생님이 안 보였어요
선생님이 입원하셨대요
선생님이 다치셨대요
선생님이 아프시데요

멋쟁이 우리 선생님
우리가 기다려줘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요
다치지 마세요
아프지도 마세요

고마운 우리 선생님
우리가 기도할게요
빨리 나아 돌아오세요
우리는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코스모스 꽃다발을 드려요

독자기고 - 시 & 수필

+

범치에 쏘이다

범치에 쏘이다

최 규 원(홍성경찰서 · 홍성문화원 회원)

2000년도에 나는 홍성의 유일한 유인도인 남당리 앞 바다에 위치한 죽도 초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처음 섬에 발령을 받아서는 어리둥절하여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주민들과도 친근하게 지내고 있었다.

특히나 당시 어촌계장님과 형님 아우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밤에 어촌계장님이 관사로 찾아와 바다로 박하지(일명 돌게로 불리며 계장을 담그어 먹음)나 잡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다.

당시 나는 박하지가 어떻게 생긴 지는 알고 있었지만 잡는 방법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바지장화 신고 후라쉬(손전등) 들고 쫓아와요.” 하시면서 갯벌로 앞장서 가시는 것이다.

서둘러 시키는 대로 준비를 하고 박하지를 담은 양동이를 들고 장화신고 후라쉬를 들고 계장님의 뒤를 쫓아갔다.

어둠 속 바닷물은 질퍽한 갯벌을 드러내 놓고 멀리 벗어나 있었다. 무릎까지 바닷물이 차는 곳으로 가서 물속에 바위들이 산재한 곳으로 걸어 다니며 물속으로 후라쉬를 비추면 밤바다 속에 박하지가 보이는 것으로 장갑을 낀 손으로 잡아 양동이에 담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잡는 바람에 박하지에게 많이 물리기도 하였지만 차츰 방법을 알게 되면서 많은 양을 잡을 수가 있었다.

바닷물은 하루에 두 번 들어오고 나가는 밀물과 썰물이



있으며, 한 달에 두 번 15일 주기로 조금(바닷물이 가장 적게 빠지고 적게 들어옴)과 사리(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옴) 물때가 있는데 박하지는 사리 때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물속에 돌이 많은 곳에서 잡는 것이다.

낮에는 박하지가 돌 틈에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사냥을 나와 돌아다니는 것을 후라쉬를 비쳐 잡는 것이다.

그렇게 박하지 잡는 방법도 배우고 낮에는 갯벌을 돌아다니며 낙지 부룻(낙지가 숨을 쉴 때 생기는 구멍)을 찾아 낙지를 잡기도 하고 바지락도 캐고 소라도 주우며 재미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밝은 늦은 밤에 물때에 맞추어 혼자서 바지장화를 신고 후라쉬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다. 심심하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아 박하지를 잡으러 나선 것이다.

한 30여분을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으나 몇 마리 잡지 못하고 조금 넓은 평평한 바위 위에 올라서서 돌 가장자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열심히 후라쉬로 바닷물 속을 비추고 있었다.

돌 틈 사이에 박하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잡으러 바위 위에서 바닷물 속으로 살짝 내려섰다.

그 순간, 발바닥이 따끔하다는 것을 느꼈다.

따끔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다. 통증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찔린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통증이 시작된 것이다. 두꺼운 고무장화 그것도 발바닥 부분을 무언가가 뚫고 들어와 내 발바닥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것이 범치¹⁾에 쏘인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통증과 함께 다리가 마비되는 것 같았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게 잡는 것을 포기하고 간신히 관사로 돌아왔으나 어찌할 바를 몰랐다.

눅지도 서지도 못하고 고통에 식은땀만 흘리다가 전화기를 들고 어촌계장님한테 전화를 하여 사정이야기를 하였다. 내용을 들으신 계장님이 빨리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신다.

관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어촌계장님 댁이 있어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밤늦은 시간에 계장님 댁을 찾게 되었다.

1) 쭈기미(범치) : 쭈기미(Scorpion Fish)는 쏘뱅이목양볼락과의 한 종으로, 동중국해 등에서 산다. 몸은 20~30cm 정도이다. 주로 작은 물고기들을 먹는다. 생김새는 원통형이고, 암갈색이며, 배가 불룩하다. 매우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 “범치” 혹은 “솔치”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물고기는 영어권에서 “쏘는 악마”로 불리기도 하고, 일본에선 “귀신고기”라고도 불린다. 쭈기미는 등지느러미는 물론 배지느러미 가시, 머리의 돌기 등에도 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독은 매우 강해서 죽은 쭈기미의 가시에도 독이 남아 있어서 찔릴 경우 심한 통증이 수반된다고 한다.

계장님 댁 마당에 불이 켜지고 거실에 나온 계장님이 “아니 이 밤중에 잠은 안자고 뭣하고 돌아다니누?”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나서,

“지랄같이 밤늦게 싸돌아다니니 범치에 쏘이지!” 하면서 웃으시는 것이다.

“어서 들어와.” 하시며 계장님이 안방으로 안내를 해 주셨다.

계장님은 미리 준비해 놓은 깡통에 말린 쑥을 넣고 불을 지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범치에 쏘인 내 발을 연기가 나는 곳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한 30여분을 쑥을 태운 연기를 쏘이고 나니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다.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였더니

“지랄 같은 초소장, 범치도 안타네 그러.” 하고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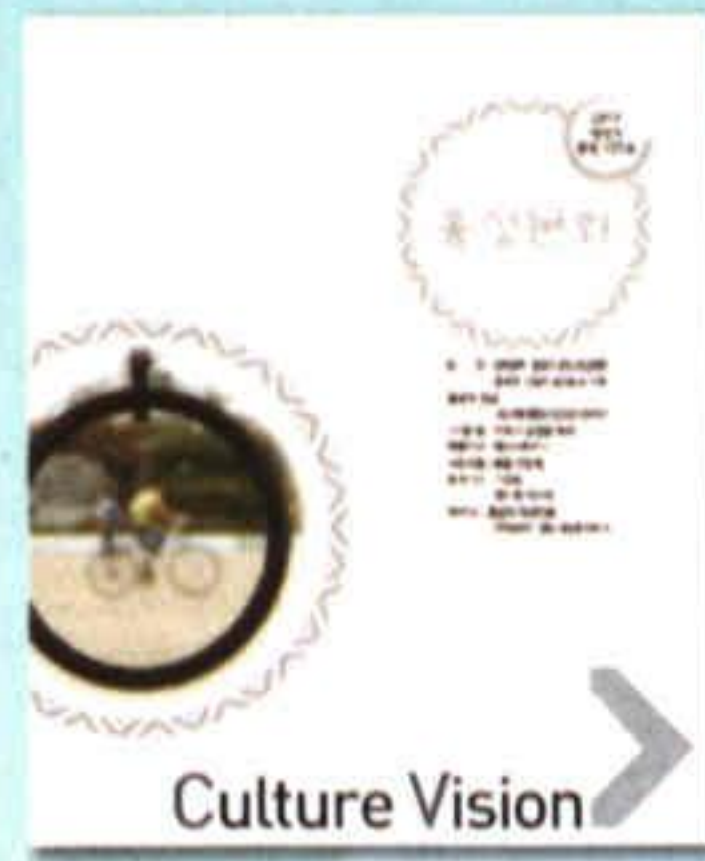
이유인즉, 그곳에 사는 어부들도 범치에 쏘이면 통증을 못 견디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거나 하루 종일 고통에 시달리는데 나는 겨우 30여분 만에 통증이 가라앉으니 그런 비유를 하신 것이다.

말이 30여분이지 처음 바닷가에서 범치에 쏘이고 관사에 왔다가 계장님 댁에 오기까지 한 2시간은 족히 넘은 듯싶었다. 그 시간 동안의 고통이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하다. 참 그렇게 아픈 기억은 여직 몇 번 없었던 것 같다.

범치라는 고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사실 이글을 쓰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사진으로만 처음 접하게 된 것이다.

범치에 쏘이고 난 이후에도 나는 가끔 박하지를 잡으러 다녔고 낮이면 갯벌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잡으러 다니며 시간을 보냈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처음 죽도 초소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바다와 섬에 대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곳이 아닌가 싶다. 가끔은 그곳이 그리워지고 생각나는 곳으로 어느 한부분 내 추억을 담고 있는 그리운 시간들이다.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 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독자기고 - 홍성의 역사인물

민족교육가 일농(逸農) 서승태(徐承台) 이야기

서 용 희 (홍성문화원 회원)



▲ 덕명학교 옛터 모습(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민족교육가 일농(逸農) 서승태(徐承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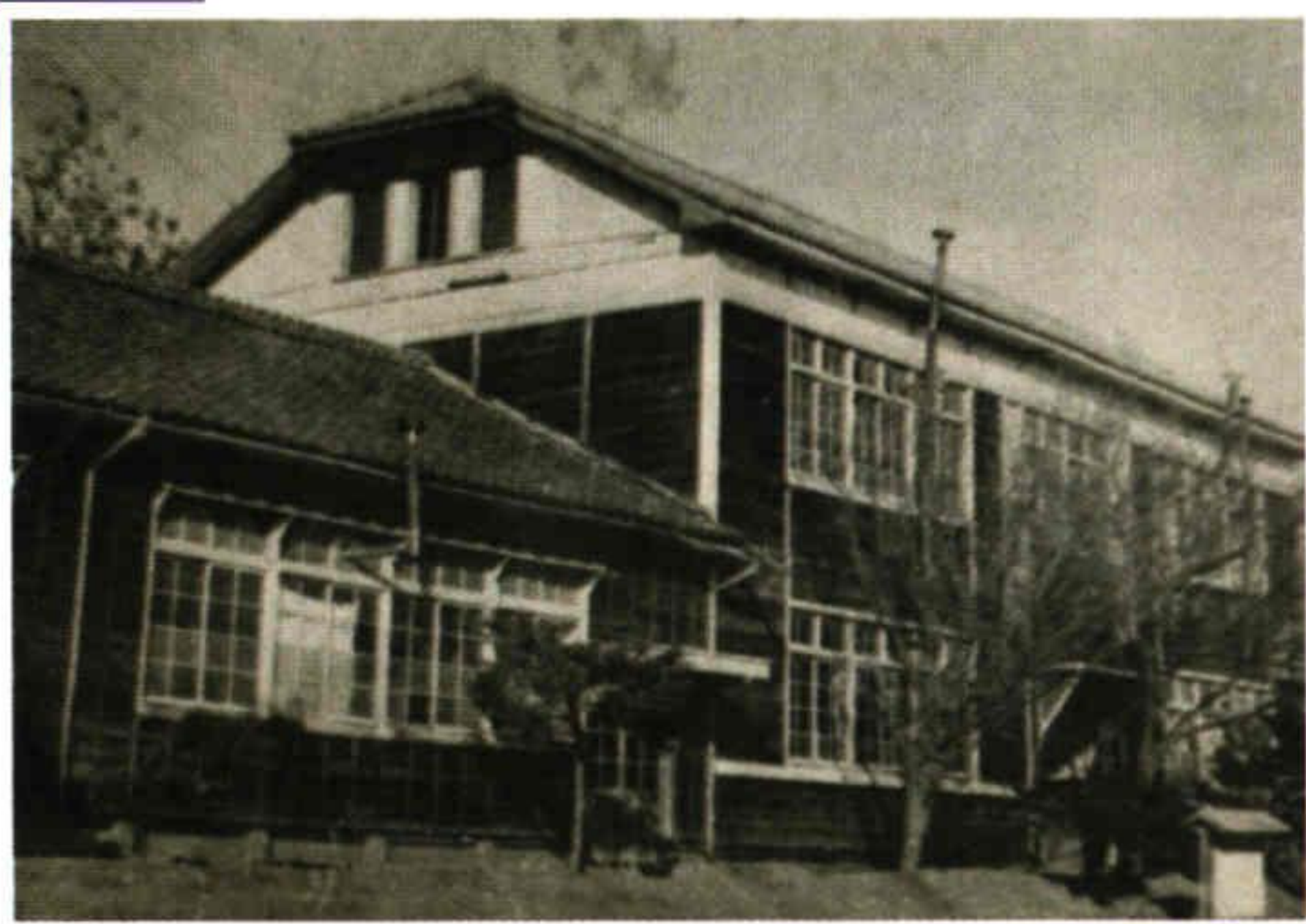
1. 일농(逸農) 서승태(徐承台)는 누구인가?

본관은 연산(連山)이고, 자는 성삼(聖三), 호는 일농(逸農)이다. 홍성(洪城)출신으로 연산서씨(連山徐氏) 18세손이자 연산 5세조이신 서련(徐隣) 제주판관(濟州判官)의 13세손으로 1854년 8월에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서지호(徐址鎬)이다.

일농(逸農)은 1908년부터 공립홍주보통학교의 학무위원을 역임하면서 교육활동에 투신하였다.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만회하는 길은 오직 신문화를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여 1908년 광천읍 상정리 덕정부락 자신의 집에 개인 재산을 회사하여 덕명학교를 설립하였고 후진들을 교육하는데 전념하였다.

2. 홍성지역의 교육기관

홍성지역의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는 결성향교와 홍주향교가 있다. 결성향교(結城鄕校)는 1010년에, 홍주향교(洪州鄕校)는 1871년에 창건되었다. 이 밖에도 노은서원, 혜학서원, 황강서원(黃岡書院)이 창건되었다가 고종 때 철폐되었다고 한다.



▲ 1930년도 덕명학교(광천공립보통학교) 모습

이후 근대에 와서는 신문학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가 설립됐다. 홍성지역에는 “팔명학교”가 있었는데 ‘명(明)’자 돌림의 이름을 붙인 학교가 여덟 곳에 있었다고 해서 부르는 명칭이었다. 팔명학교는 홍성의 영명학교, 갈산의 호명학교, 홍동의 동명학교, 장곡의 화명학교, 구항의 홍명학교, 홍성의 명덕학교, 성명학교, 마지막으로 광천의 덕명학교 이라 한다.

3. 일농(逸農) 서승태(徐承台)의 치적

일농(逸農) 서승태(徐承台)는 나라를 지키는 길은 후진 양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개인 재산을 털어 광천읍 상정리에 덕명학교를 설립하였다. 광천에서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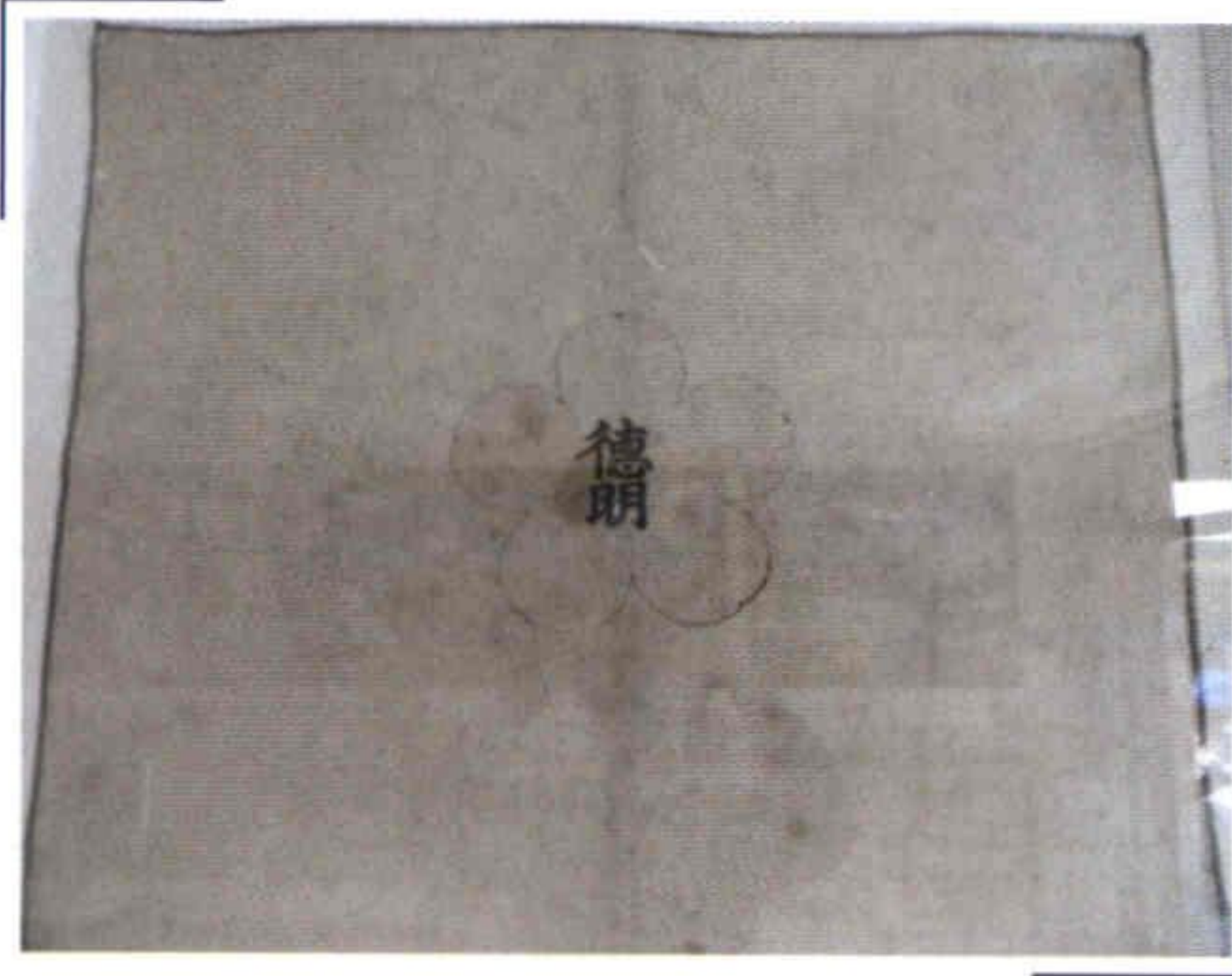
팔명학교 중 홍성의 인물 김좌진 장군이 세운 호명학교도 있었다. 일농(逸農)이 덕명학교를 설립한 시기에 김좌진 장군도 1907년에 자신의 집을 개조하여 호명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가르쳤다.



▲ 현재 덕명초등학교 모습



▲ 덕명학교 설립당시 현판
(일농 선생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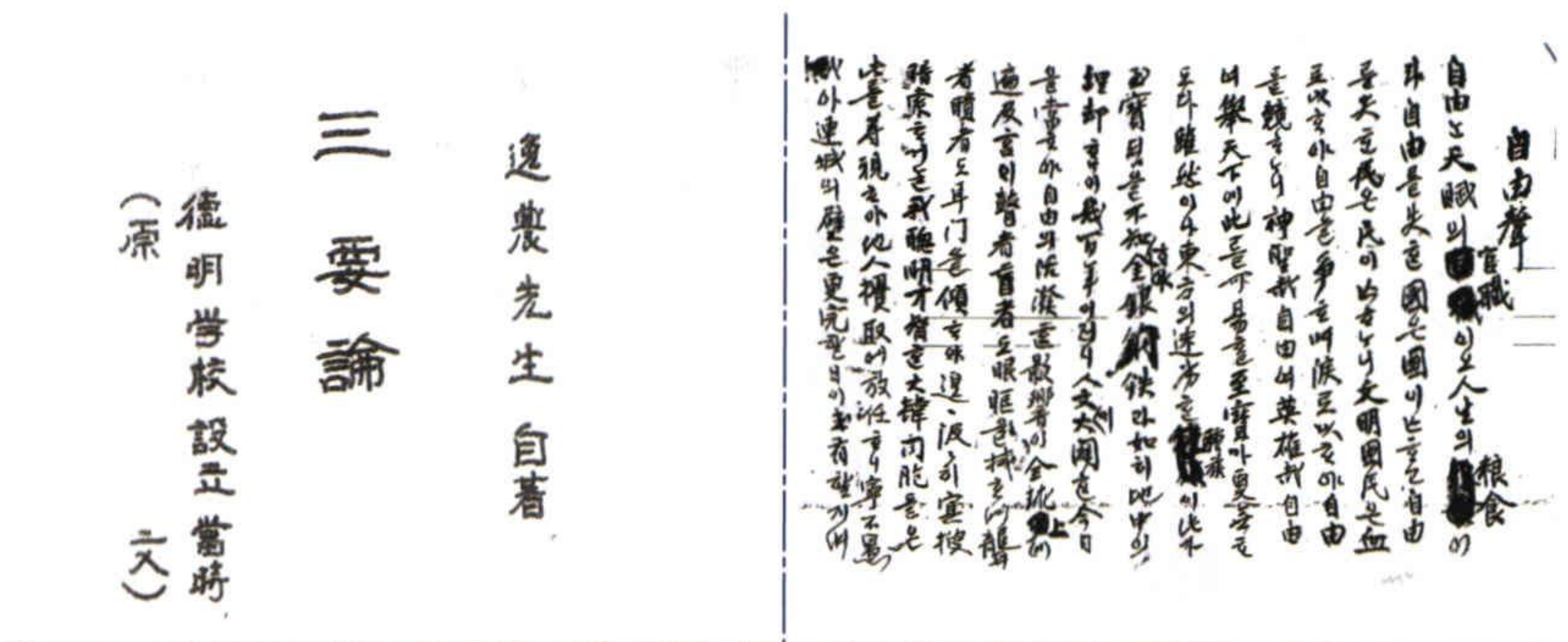
▲ 덕명학교 설립당시 교기(비단에 채색)

이는 두 학교가 새로운 학문 교육을 통해 민족독립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뜻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농(逸農)은 한문과 자신이 지은 삼요론(三要論), 자유성(自由聲), 삼력병합설(三力併合設) 등의 교재로 학생들에게 신교육을 지도하였다.

교육이념	교육이념
삼요론 (三要論)	개인과 민족에게 국가는 무엇이며 근대 국가의 융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 가지 요체를 역사·의식, 튼튼한 국방력 그리고 강한 경제력으로 설명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심을 가져야 함을 일깨우는 지침.
자유성 (自由聲)	3.1 운동 당시 서승태 선생께서 지으셔서 만세운동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자유란 무엇이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
삼력병합설 (三力併合設)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에 있어서 근력(부지런함), 지력(지혜로움), 사력(끈기) 등의 삼력의 병합이 필요하므로 타고난 능력에 따라 삼력을 병합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지침.

▲ 표1. 일농선생의 신교육 지침 저서



▲ 일농 선생의 저서 「삼요론」 표지

▲ 일농 선생의 저서 「자유성」

이후 졸업생 및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광천읍 신진리에 세운 학교를 덕명초등학교(德明初等學校)라 이름 짓고, 교정에 서승태의 비(碑)와 일농관(逸農館)을 세웠다.

4. 독립운동가로도 활약

일농(逸農)은 1907년에 홍성군 궁정면장(현 광천읍장)에 임명



▲ 일농 서승태 선생 흥학 기념비



▲ 덕명초등학교 일농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질서를 회복시켰고 기근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빌려주는 등 온 힘을 다하여 면장 직무를 7년간이나 잘 수행하였으나 1913년 자진 사퇴하였다.

한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독립선언문을 배포하고, 전교생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세한 활약상은 다음 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5. 맺는 말

현재 덕명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덕명초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일농 선생에 대해 재조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17일 읍민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덕명한마당 축제 행사가 기폭제가 되어 일농의 교육이념과 국가관을 계승시킬 수 있도록 일농의 선조묘역이 있는 보개산(寶蓋山) 산하(傘下)에 기념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그분의 치적과 교육이념을 후세의 교육지표로 삼아 가는 것이 일농의 유훈을 따르는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일농 기념관(逸農 記念館) 건립을 바라는 바이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서승태(徐承台),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홍성군(충청남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홍성문화 2014 통권 176호』 학교 연혁지를 통해 살펴본 호명학교와 갈산초등학교, 김정현, 2014
- 덕명학교 설립자 일농 서승태 선생의 발자취와 그의 저서
- 『광천읍지』 광천읍지편찬위원회, 2010

홍성문화원 문화사업 - 우리문화탐방

홍성문화원, 상반기 우리문화탐방 실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하동 · 수원으로 문화탐방 다녀와
지역주민 120여명 참가 ... 전통 역사문화체험 기회제공

홍성문화원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2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하동과 수원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우리문화탐방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역사,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며 현지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직접 과거의
역사문화를 보고 느끼고 배우는 현장체험을 제공하여 우리의 전
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우수성과 자긍심, 이해를 돕기 위해 마
련돼 매년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01

홍성문화원, 상반기
우리문화탐방 실시

올해 상반기 우리문화탐방은 1회차는 4월 10일(금), 2회차는 5월 22일(금)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1회차 하동문화탐방은 지역주민 80여명이 참가, 화개장터에서부터 쌍계사에 이르는 섬진강변 벚꽃길로 유명한 경남 하동으로 문화탐방을 떠났다. 매화마을, 최참판댁, 화개장터, 쌍계사를 둘러보는 코스로 화창한 봄날, 봄 향기에 벚꽃도 만끽하면서 문화유적과 건축물들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2회차 수원문화탐방은 지역주민 40여명이 참가, 경기 수원·용인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수원화성, 행궁을 거쳐, 용인 한국민속촌을 둘러보는 코스로 짜여졌다. 특히, 이번 탐방은 수원문화원에서 나온 저명한 향토문화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수원화성에 대한 역사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한편, ‘2015 우리문화탐방(문화유산답사)’은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마련되어 4월부터 11월에 걸쳐 연 6회 실시된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문화탐방은 3회차는 서울 궁궐로 경복궁과 창덕궁을, 4회차는 강원도 백담사를, 5회차는 전남 순천으로 순천만, 낙안읍성을, 6회차는 전남 백양사, 전북 내장사를 탐방할 예정이다.

접수방법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홍성문화원 홈페이지(www.hscul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041-633-1199) 또는 이메일(hscult@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매회 참가비는 1인 2만원 내외 정도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홍성문화원 사무국(041-632-3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문화원 문화사업 - 전통성년식

어린마음을 버리고 성년의 덕을 지녀라!

홍성문화원 · 혜전대학교, 지난 5월 18일 전통성년식 개최
혜전대 학생 1,000여명 참석

전통성년식이 성년의 날인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혜전대학교 간호학술관 대강당에서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02

어린마음을 버리고 성년의 덕을 지녀라!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과 혜전대학교(총장 이재호)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우리의 전통방식으로 진행되는 전통관례 및 계례의식을 거행했다.

이날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이종민 군이 올해 성년이 되는 남자를 대표해 관례의 관자로, 동 대학 간호학과 정소연 양이 성년이 되는 여자를 대표해 계례의 계자로 전통적인 절차에 따라 성년이 되는 의식을 치렀다.

주례는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회장인 김경석 씨, 계자빈은 선명예다연구회 원성자 씨가 맡았으며 관자와 계자 부모, 찬자와 시자의 역할은 홍주향토문화연구회원과 선명예다연구회원들이 맡았다.

의식은 먼저 어른이 입는 세 가지 복장을 갈아입으며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삼가례(초가례, 재가례, 삼가례)’가 진행되고 다음은 어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남자에게는 관을 씌워주고, 여자에게는 비녀를 틀어주는 ‘가관례’, 성인이 됨을 축하하는 뜻에서 관자에게는 술을, 계자에게는 차를 마시는 법도를 알려주는 ‘초례’, 마음가짐과 행동을 경계하라는 뜻을 담아 이름 대신 부를 수 있는 자를 내려주는 ‘명자례’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성년선언’으로 “이제 모든 예의를 다 갖추었으니 성인이 되었다. 이 좋은날에 너에게 자를 지어주었으니 마땅히 소중하게 지닐 것이며, 아름다운 글자에 합당하는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지니라”고 외치면서 모두 마무리된다.

한편, 전통성년식은 충청남도과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홍성문화원과 혜전대학교에서 성년자들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홍성문화원 문화사업 -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

필립 톰슨 피아노 연주회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 홍성문화원 대강당에서
필립 톰슨 특별초청 ... 애절한 피아노 선율로 관객 매료



필립 톰슨 피아노 연주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필립 톰슨’ 피아노 연주회가 지난 5월 20일 오후 7시 홍성문화원 대강당에서 펼쳐졌다. 홍성문화원의 ‘2015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필립 톰슨을 초청, 홍성군민들을 위한 특별한 피아노 연주회를 갖았다.

필립 톰슨은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로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와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서 공부하고 줄리어드 리스트 콩쿨에서 우승한 실력과 연주자다. 현재 미국 애크런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톰슨은 지난 2011년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연세대, 서울예술회관 등에서 공연을 했으며, 그동안 헝가리,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중국 등 전 세계를 순회하며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홍성 공연에서는 슈만/리스트의 ‘현정’, 슈베르트의 ‘즉흥곡 G플랫, 작품 90의 3’과 ‘즉흥곡 A플랫, 작품 90의 4’, 보르트키에비치의 ‘연습곡 G샷단조, 작품 15의 6’,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제11번 밤의 선율’, 빌라 로보스의 ‘브라질의 시 제4번 화이트 인디안의 춤’,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 등 주옥같은 피아노 명곡들을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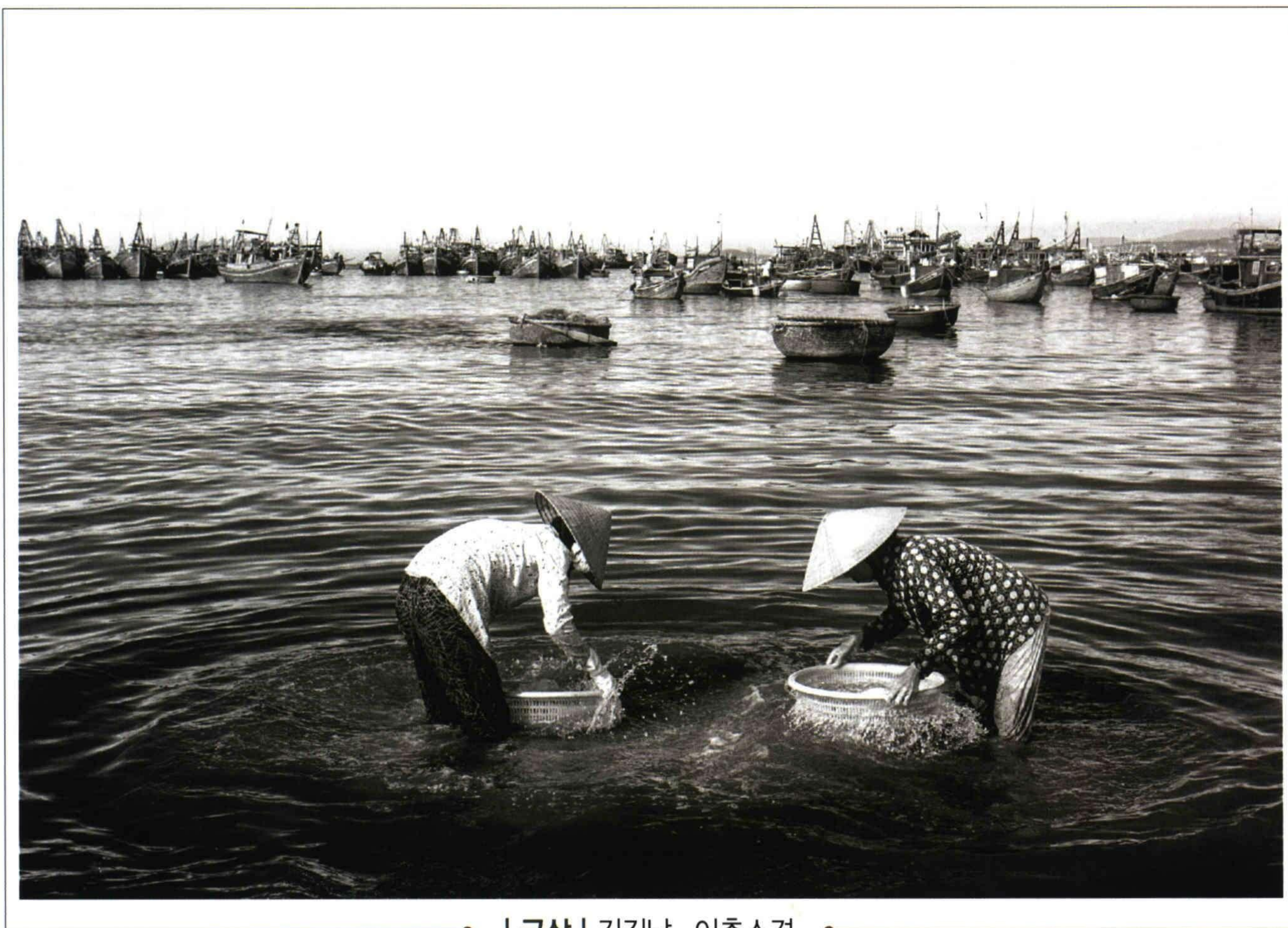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2015 함께하는 열린문화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남도과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마련되어 무료공연으로 진행됐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며, 열린 문화원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필립 톰슨은 홍성문화원의 ‘2014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주앙 파울로와 홍성에서 듀엣 콘서트를 선보인 바 있다. 



제8회 홍성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

주최 : 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 •



• | 금상 | 김길남_ 어촌소경 •



• | 은상(명소) | 임무송_ 김좌진생가 •



• | 은상 | 변승만_ 무희 •



• | 동상 | 주상준_ 호치민 광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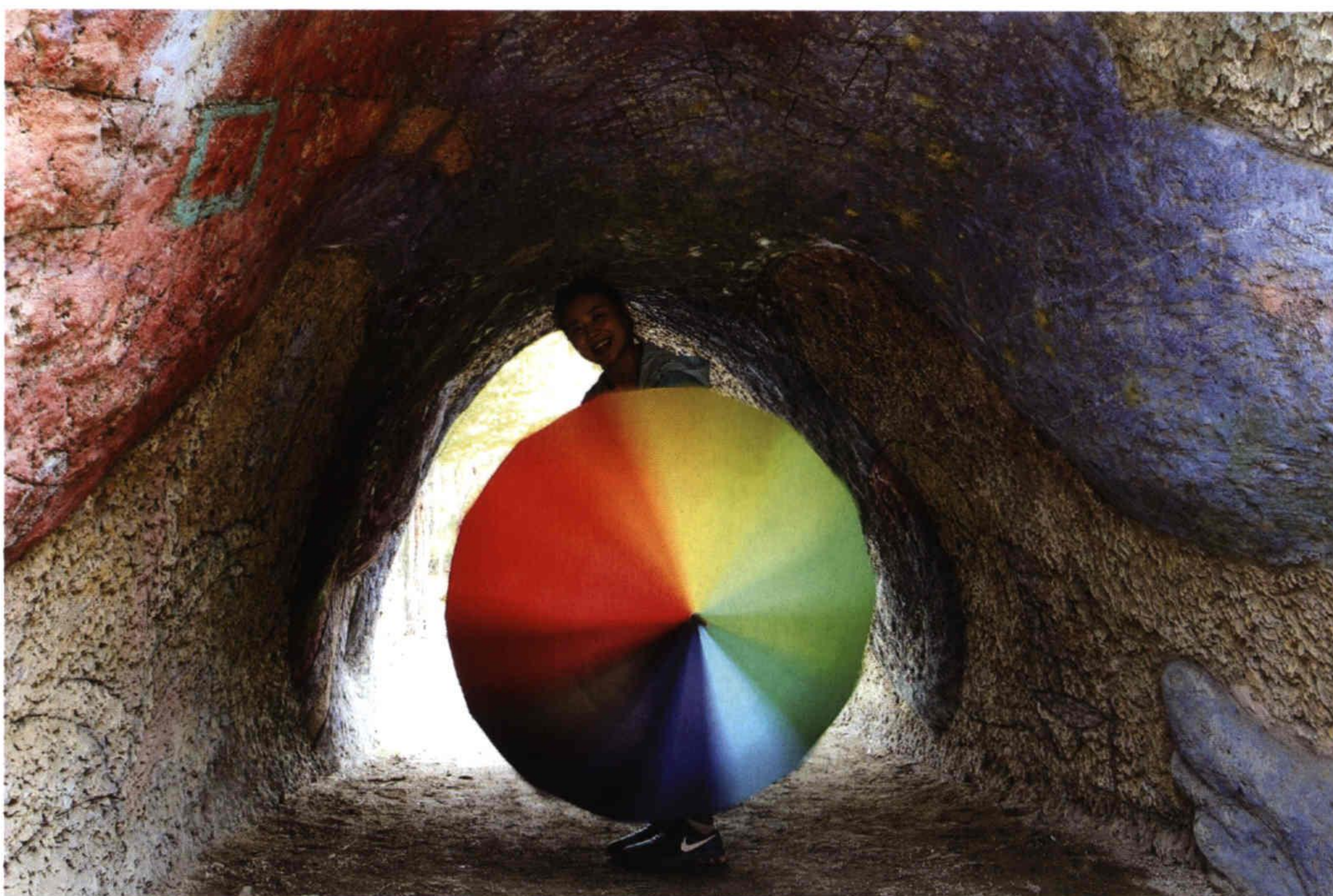
• | 동상 | 이충자_ 궤적과 반영 •



• | 동상 | 조증업_작업 •



• | 가작 | 이현순_선 •



• | 가작 | 이병희_ 무지개 우산 •



• | 가작 | 김웅석_ 반영 •



• | 가작 | 이육진_ 보리밭 •



• | 가작 | 지성근_ 참수리 •



• | 장려 | 차찬호_ 사랑의 세레모니 •



• | 장려 | 장 윤_ 거리의 공주 •



• | 장려 | 김윤주_ 생존 •



• | 장려 | 주홍균_ 고니의 비상 •



• | 장려 | 원삼철_ 옥정호의 붕어섬 •

2015 홍성문화원 상반기 주요행사

2015년도 신년교례회



1월 5일(금)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홍성의 문화발전과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홍성관내 각급 기관·사회·문화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상호인사를 전하며 덕담을 나누었다.

제57차 홍성문화원 정기총회



3월 6일(금)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유환동 원장을 비롯한 이사 및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문화원의 201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했으며 여러 가지 세부사업 의견도 내놨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를 끝내고 문화원 마당에서는 회원 및 문화예술인이 참여한 지신밟기, 풍등 날리기, 군민화합 및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기원제를 열었다.

우리문화탐방(1, 2회차)



4월 10일(금) 1회차 하동문화탐방은 경남 하동으로 매화마을, 최참판댁, 화개장터, 쌍계사를 둘러보는 코스로 지역주민 8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5월 22일(금) 2회차 수원문화탐방은 경기 수원·용인으로 수원화성, 행궁, 용인 한국민속촌을 다녀오는 코스로 지역주민 40여명이 참가했다.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우리의 전통 역사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는 현장체험으로 매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전통성년식(전통관례 및 계례 재현)



5월 18일(월) 해전대학교 간호학술관 대강당에서 학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매년 성년의 날을 맞아 우리 전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대표 성년자 20명이 전통복식과 절차에 따라 성년이 되는 의식을 거행해 오고 있다.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1회차)



5월 20일(수)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 사업 1회차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필립 톰슨을 특별초청, 지역주민들을 위한 피아노 연주회를 갖았다. 계속해서 지역공연문화의 활성화 기대와 열린 문화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다양한 무료공연 및 전시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학교 강좌 운영



홍성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 학교를 연중 운영. 매년 다양한 문화강좌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상반기는 한글서예, 건강체조, 국선도, 행복/소통/스피치지도사1급 자격과정, 통기타, 포크기타, 요가(전통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캘리그래피, 난타, 중국어, 아코디언, 풍물놀이, 문인화, 노래, 컨츄리 인형, 명리학, 천연비누, 풍수지리, 서양화, 오카리나, 한문서예 등 32개 강좌를 운영했다.

음악감상실 운영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함양과 여가선용을 제공하기 위해 음악감상실을 연중 운영,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감상을 즐길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방법은 개인소장 CD(복제 CD 제한)를 지참한 후 문화원 사무국을 방문하여 이용기록부를 작성하고 나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향토도서관 운영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함양과 여가선용을 제공하기 위해 향토도서관을 연중 운영, 홍성문화원 회원이면 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DVD, CD) 등을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문화원 사무국을 방문하여 희망하는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여하면 된다.

향토문화소식지 「홍성문화」 발간



홍성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소식을 기록하고 해석, 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인식향상과 우리고장을 더욱 알리는 역할을 도모하고자 '홍성문화'를 연2회 발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각 1,000부씩을 발행한다.

홍성군민, 기관단체를 비롯한 전국지방문화원과 유관기관, 도내 도서관, 문화원 회원, 지역주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해 오고 있다.



2015 홍성문화원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역청소년 계간 문예지 발간사업'



청소년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장려하며 평가중심의 교육에서 각자의 관심사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내 청소년들 간의 결속력 강화와 향토애를 고취시키고자 충남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홍성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연4회 계간지를 발간, 청소년 작가, 오피니언 리더, 북토크, 고민상담, 핫이슈 등을 다룬다.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부보상 퍼레이드 재현'



점점 사라져가는 부보상의 전통과 얼을 계승하여 충남의 소중한 문화 자원으로 부각시키고자 충남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부보상단 <원흥주등6군상무우사>와 지역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주성과 여하정, 조양문에서 부보상 퍼레이드 및 부보상 퍼포먼스(마당극), 부보상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다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부보상의 얼을 체험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역재방죽 달빛 데이트'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국민의 생활 속 문화체험 확대와 생활문화활동 독려 및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지원을 위하여 선정한 '문화가 있는 날'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야간시간에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역재방죽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문화예술공연을 펼친다.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홍성군문화나눔봉사단'



홍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을 주축으로 하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양로원, 요양원 등 문화소외시설 및 지역축제장,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을 실시하여 문화적 봉사의 참 의미를 부여하고 좋은 문화를 함께 만들고 보급시키는 문화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단원 50명을 구성,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함께 방문공연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어르신문화동아리 '아코디언 앙상블'



홍성문화원 문화학교에서 다년간 실력을 쌓아온 어르신 아코디언 동아리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보수교육, 공연관람을 통해 실제 무대에서는 경험을 제공, 향후 문화나눔봉사단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며 문화나눔실현 기대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동아리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함께 방문 공연실습을 실시한다.

어르신문화콘텐츠 개발 '하산마을 산신제 축제'



홍북면 상하리 하산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산신제와 그 밖에 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여 마을 축제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어르신들이 실제 산신제 진행 요원양성 및 체험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직업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홍북면 하산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21명을 모집, 산신제 운영, 마을 전설 및 설화자료 제공, 마을해설사 지원 등 마을 문화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텔링 작업에 참여한다.



2015 홍성문화원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청소년 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우리고장 바로알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해 바로 알고 체험 학습을 통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흥미 증진을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내포초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30명 모집, 현재 초등학교 사회과목 지역사회에 대한 수업과 관련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과 역사 인물, 전통문화 등의 교육 및 답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홍성군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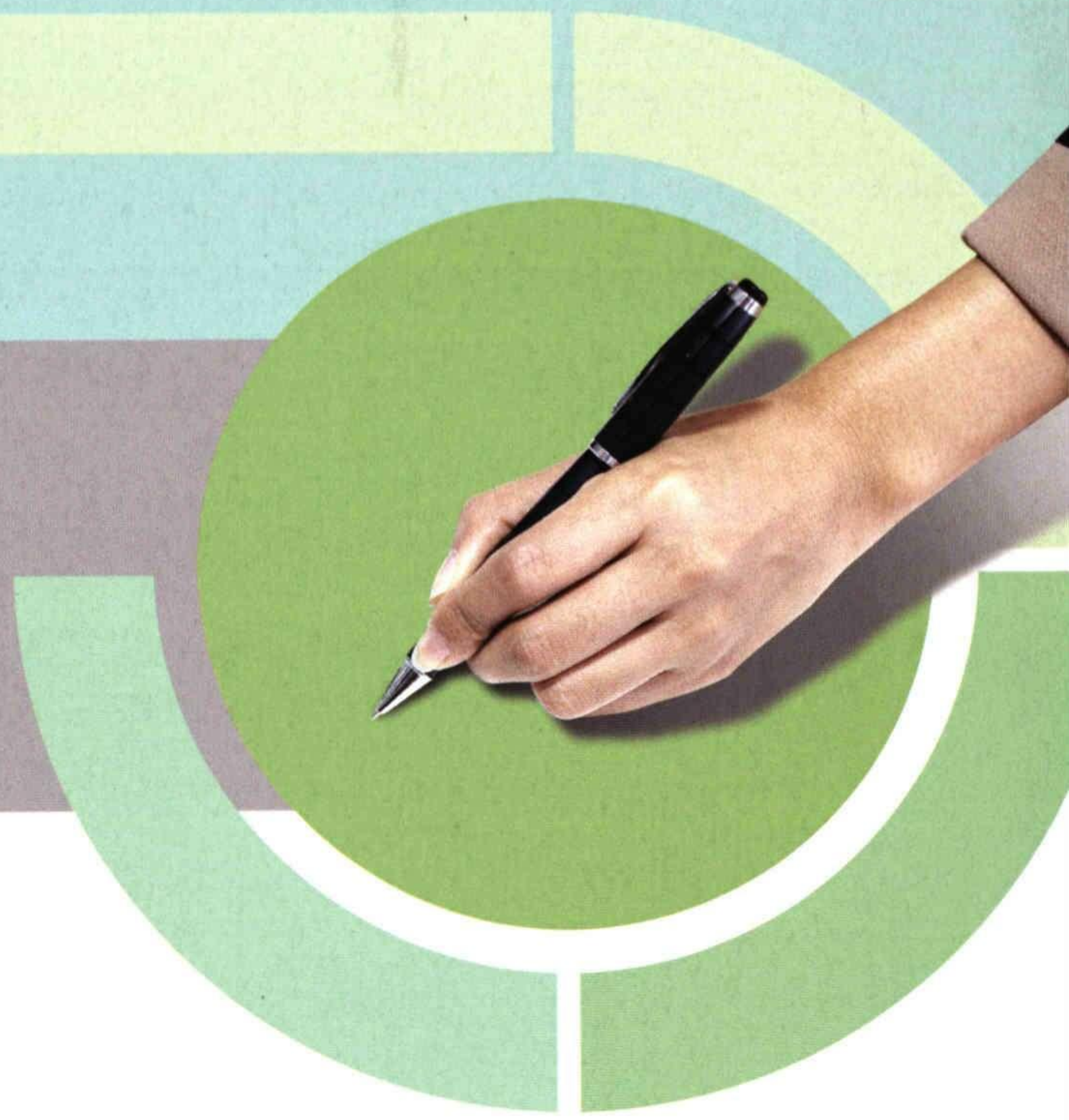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 문화·체육 확산과 문화체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문화봉사자(공급자)와 봉사자가 필요한 활동처(문화시설/단체)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매칭시스템으로서 이 사이트를 통해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 및 단체들은 필요한 봉사자를 손쉽게 모집·관리할 수 있으며, 봉사에 참여하는 개인, 동호회,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홍성문화원은 2014년 12월부터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홍성군지원센터로 지정되어 홍성관내 문화자원봉사자와 활동처들에게 다양한 문화자원봉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홍성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이 홍성의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감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8월 1개월간 다문화가정, 이주민, 유학생, 홍성주민을 대상으로 14명을 모집, 세계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교양 지식과 상식, 에티켓 교육을 실시한다.

따뜻하고 정겨운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홍성문화에 여러분의 감성을
뽐내시는 것은 어떠실지
짧은 시, 글, 사진 등
사랑을 표현하는 감성은 많습니다.

홍성문화원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성문화」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소설, 칼럼, 에세이, 시 : A4 2~5장, 글자 10Point
4컷 혹은 8컷 카툰 : 14×15cm, 1654×1772픽셀 이상 300dpi의
jpg파일 형식
사진 또는 그림이미지 : 고해상도 원본파일(1654×1772픽셀 이상)

보내실 곳

350-80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홍성문화원 사무국
T. 041-632-3613 F. 041-633-1199
E. hscult@naver.com

비 고

원고를 송부하실 때에는 성명,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고
필자의 사진과 원고관련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홍성문화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홍성문화원 일반회원 모집 안내

홍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대 상 : 누구나 / **연회비** : 50,000원



총회 의결권 부여(12개월 이상 납부자)



홍성문화원 회원증 발급



정기간행물인 『홍성문화』 무료 우송



향토유적 답사 및 기행프로그램에 우선 초대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의 수강료 30% 할인



홍성문화원 도서관의 모든 간행물 및 자료(DVD, CD) 열람 및 대출

※ 회원가입은 문화원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문 의 ☎(041) 632-3613

Hongseong Cultural Center



홍성문화원은 일제침략과 6·25사변 이후 농촌의 생활면에서 침식 풍마된 압농 사상과 도의 및 윤리 생활면의 퇴폐된 불신과 부정의 사회적 사조와 요소의 근인이 되어 민심의 불안저오가 민간생활의 양극성을 초래하였기에 국민생활의 건전한 기풍진작과 민심순화를 위한 공보계몽사업의 필요성과 향토문화사업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당시 안상혁씨께서 문화원 설립을 착상하고 이를 추진키 위하여 홍성군 관내 각 기관장 및 유지 연석회의에서 설립·추진을 결의하고 홍성문화원 설립 준비 위원회를 조기하여 문화원 창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954년 3월 안상혁(安相赫) 초대 원장이 취임, 1956년 9월 2대 원장에 전영희(全永喜), 1960년 10월 3대 원장 김동주(金東冑), 1961년 12월 4~9대 원장 주연종(朱璉鐘), 1984년 5월 10대 원장 오준영(吳駿泳), 1987년 3월 18일 11~13대 원장 황규철(黃圭喆), 2004년 12월 14~15대 원장 이하영(李夏永), 2004년 12월 16~17대 원장 전용택(田溶澤), 2012년 12월 18대 유환동(俞煥東)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이 홍성의 문화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성문화원은 지역주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과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배움의 터는 물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기개발의 발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HONGSEONG CULTURAL CENTER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 발행인 : 유환동 / 편집인 : 홍성문화편집위원회
발행일 : 2015년 6월 / 발행처 : 홍성문화원 / 인쇄처 : 충남인쇄사(041-634-3114)

350-80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TEL:041-632-3613, E-mail:hscult@naver.com
편집주간 : 조성미 / 편집위원 : 김정현 · 조원찬 · 조남민 / 편집디자인:김기연